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23호 【루계 제24371호】 주체102(2013)년 11월 19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에 선물을 보내시였다

절세위인들의 군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속에 식료공장의 표준공장, 백점, 만점짜리 공장으로 전변된 조선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 로동계급이 또다시 대해같은 은정을 받아안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공장에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몸소 공장을 찾으시여 어머니날을 맞는 녀성근로자들을 따뜻이 축하해주시고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여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신데 이어 거듭 베푸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은덕에 온 공장이 고마움의 격정으로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17일에 진행되였다.

인민무력부 일군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선물전달사가 있었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선물에는 군인들을 위한 일에서 거둔 성과를 무엇보다 기뻐하시며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돌려주시는 친어버이의 다심한 정이 어려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깊이 명심하고 군인들의 어머니, 참된 복무자라는 영예드높이 식료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선물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기사장 민석기, 로동자 김영희가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날로 더해만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랑에 격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오늘의 영광을 대를 이어 전해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언제나 우리 병사들을 자신의 친근한 동지, 전우라고 불러주시며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군인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기 위해 헌신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생산공정의 무인화, 무균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현대적인 설비들을 애호관리하여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병사들의 참된 충복이 되여 군인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 전체 로동계급에게 보내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 진행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의 전체 로동계급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높이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생산을 늘여 군인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17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룡해동지와 인민무력부 일군들, 공장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최룡해동지가 전달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공장의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에서 위생성이 보장되고 자동화, 무인화가 실현된데 대하여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자랑하고싶은 본보기공장, 식료공장의 표준공장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며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은정어린 감사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감사에는 우리 당이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병사들의 참된 충복이 되여 그들에게 당과류를 비롯한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공급할것을 바라시는 크나큰 기대가 담겨져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오늘의 이 영광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높은 생산성과로 보답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공장지배인 김혜란, 작업반장들인 박금옥, 리상혁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뜻깊은 어머니날을 맞으며 공장을 찾아오시여 멋쟁이공장, 백점, 만점짜리 공장이라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시고 대를 이어 길이 전할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그 사랑을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조국보위초소에 자식들을 내세운 온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을 그대로 안으시고 공장에 오시여 일을 더 잘하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당부를 심장깊이 새기고 맡겨진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더욱 높여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며 군인대중의 호평을 받는 제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 군인들의 식생활향상에 기여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랑을 안고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확립해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618건설돌격대를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618건설돌격대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청년전위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맡은 임무수행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는 국제청소년려행사 안내통역원 조성민은 조국번영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바쳐가고있는 돌격대원들에게 여러차례 많은 후방물자를 보내주었다.

고산과수농장을 현대적인 대규모 과일생산기지로 일떠세우는 사업에 참가한 대성지도국 무역짐배 선원 리정철, 평양곡산공장 기사 김광일, 형제산구역 도로강하천시설사업소 로동자 김옥영은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지원사업에도 앞장서고있다.

압록강친선합작회사 로동자 최의련은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변모되는 청춘과원건설에 기여할 일념안고 성의껏 준비한 많은 지원물자들을 보내주어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적극 북돋아주었다.

금성청년출판사 기자 리은정은 반일애국렬사유자녀로서 어머니당의 은덕에 충정으로 보답하기 위해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돌격대원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었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을 훌륭하게 꾸리는데 온갖 지성을 바쳐온 평양객차대 로동자 김용운은 고산과수농장건설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함으로써 집단의 사랑을 받고있다.

후대교육사업에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는 대동강구역 동문소학교 교원 리혜영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숭고한 뜻을 결사관철해가는 돌격대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에도 적극 참가하였다.

맹산군 백규석생산사업소 지배인 신현수는 통이 큰 지원으로 고산땅의 전변을 안아오는데 이바지하였으며 담배련합기업소산하 판매소 회계부원 김정화는 지원사업에 성의를 다하여 돌격대원들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감사를 격정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한 일을 더 많이 할 열의로 가슴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김정일대원수님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 * *

김정일대원수님회고 몽골전국위원회 결성식이 12일 울란바따르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몽골평화친선련맹, 몽골조선친선협회, 몽골주체사상—선군사상연구협회, 김정숙유치원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일대원수님회고 몽골전국위원회 위원장과 집행위원장으로 몽골주체사상—선군사상연구협회 위원장 느. 도르쥐쑤렌과 몽골평화친선련맹 서기국장 요. 막씸이 선출되였다.

결성식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였다.

김정일령도자회고위원회 결성식이 12일 인도네시아다양성당청사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인도네시아다양성당 전국지도리사회의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 서기장으로 인도네시아다양성당 전국지도리사회 총위원장 누르딘 뿌르노모와 총서기 하린더 싱이 각각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가 8일 쓰르비아의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쓰르비아의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비서 바뜨리츠 미요비츠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20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소개선전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리자

기본구조물공사에서 최고기록 돌파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자들 종전 같은 기간에 비하여 굴착 4만 5 000㎥, 성토 5만 6 000㎥, 콩크리트치기 1만 1 500㎥ 더 수행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 새로운 창조와 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시대정신, 제2의 희천정신을 창조할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공사 첫해인 올해에 최대의 실적을 올릴 자각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각 단위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전달에 이어 11월에도 총돌격전을 줄기차게 벌려 련일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불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 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한달 남짓한 기간에 전반적인 발전소건설장들에서 언제를 비롯한 발전소구조물건설이 본때있게 진행됨으로써 공사실적이 제일 높았던 종전 같은 기간에 비하여 중요선행지표인 굴착공사는 4만 5 000㎥, 성토공사는 5만 6 000㎥나 더 수행되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특히 11월에 들어와 구조물들의 콩크리트치기가 더욱 힘있게 다그쳐지는 속에 콩크리트치기량은 종전보다 1만 1 500㎥나 더 늘어남으로써 발전소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혁신적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심상모, 권영태동무를 비롯한 현장지휘부일군들은 전투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세우고 각 단위들에서 립체전을 벌리도록 요구성을 높이는 한편 련관부문, 단위들의 사회주의경쟁도 방법론있게 조직하여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자재보장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밀고나가고있다.

이미 희천9호발전소 우안의 언제콩크리트치기를 힘있게 다그쳐온 평양시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전달에 이어 11월에 들어와 여러 구조물공사를 추진하면서 언제의 마지막 공사대상인 수문기둥콩크리트치기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이들은 수문기둥들이 높아지는데 맞게 합리적인 발판형성방법을 받아들인데 이어 수직혼합물운반계통을 새로 형성하고 5개소에서 콩크리트치기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낌으로써 11일현재 2개의 수문기둥공사를 완전히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희천11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함경남도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착암설비들에 만부하를 걸고 발파회수를 부쩍 늘여 최근 열흘동안에만도 8 000여㎥의 굴착실적을 올리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희천8호발전소건설에 떨쳐나선 평안남도려단의 전투원들은 언제가물막이공사에 이어 첫 구간의 언제보강판콩크리트치기를 단 하루동안에 해제낀 기세로 언제굴착공사에서 완강한 공격정신을 발휘하여 이달에 들어와 수천㎥를 굴착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희천5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황해남도려단 전투원들은 새로 가물막이공사를 끝낸 구간에서 언제굴착을 하루빨리 앞세우고 기초콩크리트치기에 진입할 열의밑에 총돌격전을 드세게 벌려 11월 상순에 5 000여㎥를 굴착하는 위훈을 떨치였다. 특히 려단에서는 2선가물막이를 진행하지 않고도 건설을 본때있게 내밀수 있는 합리적인 공사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일 작전밑에 양수기와 굴착설비들을 총집중시켜 언제기초굴착을 전격전, 섬멸전의 방법으로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평안북도려단의 돌격대원들은 희천6호발전소건설에서 제2의 희천정신을 창조할 열의에 넘쳐 수위가 높고 물살이 빠른 공사장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구간별로 뚝을 형성하고 배수전투를 벌리면서 기초콩크리트치기를 힘있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희천10호발전소건설을 맡은 철도성려단 전투원들도 짧은 기간에 암질조건이 불리한 구간의 암반굴착과 정리굴착을 와닥닥 다그침으로써 기초콩크리트치기에 진입하였다.

언제건설과 함께 여러 대상공사들을 겨울철전에 확고히 선행시키기 위한 투쟁에서도 계속 큰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평양시려단의 전투원들은 언제수문기둥공사와 동시에 10여개 대상의 작업장을 더 마련하고 짧은 기간에 취수구도류벽공사를 완성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구조물들의 콩크리트치기에서 한달 남짓한 기간에 최고실적을 올림으로써 온 건설장적으로 소문을 내고있다.

평안남도려단 전투원들은 수십m의 물고기길보강판 기초굴착과 콩크리트치기과제를 불과 며칠동안에 와닥닥 해제끼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들은 그 기세로 방수로바닥과 옹벽, 취수구수문 등 여러 대상의 콩크리트치기를 계속 본격적으로 내밀어 올해공사목표점령을 위한 튼튼한 담보를 마련해가고있다.

자강도, 함경남도, 황해남도려단의 돌격대원들은 물길굴확장과 취수구수문기둥, 발전기실건설을 비롯한 여러 대상공사를 본격적으로 다그쳐 올해전투과제수행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남포시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북창발전소건설기계화사업소 전투원들과의 긴밀한 협동하에 언제가물막이공사에 산악같이 떨쳐나 짧은 기간에 수천㎥를 성토하고 가물막이공사를 마감단계에 올려세우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희천12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태천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대형철판휘틀을 새로 제작도입하여 건설물의 질을 최대로 높일수 있게 한데 기초하여 취수구수문기둥과 남은 구간의 취수구도류벽콩크리트치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으며 희천4호발전소건설을 맡은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남은 구간의 물고기길공사를 계속 다그치고있다.

지금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 떨쳐나선 각 단위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진 맹세대로 방대한 올해공사과제를 기어이 완수할 열의밑에 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대상공사에서 련일 자랑찬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류기풍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계속 전진
함경북도의 령도업적단위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령마루에 승리의 붉은기를 휘날려야 합니다.》

함경북도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호소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서 령도업적단위들이 앞장에서 달리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이 령도업적단위들에 나가 걸린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주면서 대중을 새로운 기적과 혁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무산의 로동계급이 수십만산대발파의 장엄한 뢰성을 련이어 울리며 대고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필요한 수백점에 달하는 부속품과 부분품들을 자체로 마련하며 쇠돌생산과 철정광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수십건에 달하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과 창의고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여 장거리벨트콘베아를 비롯한 생산공정들을 보다 현대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특히 이들은 올해에 들어와 대발파를 포함한 백여차례의 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채광량을 늘이는 동시에 종전에 비하여 선광장들의 생산능력을 높여 년간 수백만t의 철정광을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닦아놓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방대한 3호용광로와 2호전로대보수전투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낸데 이어 원호식련속조피기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시험생산을 원만히 보장하여 철강재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다.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첨단과학기술을 받아들여 능력이 큰 전국프레스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제작완성함으로써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하였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170여개에 달하는 부분품들을 창안제작함으로써 김책제철련합기업소 3호용광로대보수기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였다.

청진제강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구단광수직로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면서 회전로들에 대한 보수정비를 짜고들어 주체철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고무산세멘트공장에서는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웅근 하나의 공장을 건설하는것과 맞먹는 생산능력확장공사를 통이 크게 내밀고있다.

서두수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이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고 물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매월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경성애자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 높은 생산성과로 빛내일 일념안고 각종 애자와 전기기구, 설비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어랑천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어랑천5호발전소 물길굴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데 이어 수십리에 달하는 도로건설을 힘있게 내밀어 어랑천3호, 4호발전소건설을 앞당길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수성천종합식료공장과 무산식료공장, 회령시의 경공업공장들을 비롯한 도의 경공업공장들과 지방공업공장들에서도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소비품들을 더 많이 질좋게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새 합숙건설 적극 추진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종업원들을 위한 새 합숙건설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건설이 시작된지 얼마 안되는 기간에 연건평이 수만㎡인 여러동의 합숙건물들의 기초굴착과 기초콩크리트치기공사가 이미 끝났고 골조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장병들은 마식령스키장건설뿐아니라 당이 맡겨준 모든 중요대상건설과 도, 시, 군들을 꾸려주기 위한 사업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지난 10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께서 공장합숙을 잘 지어줄데 대해 간곡히 당부하시였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책임지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훌륭한 합숙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공장합숙부지도 몸소 정해주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전초기지나 같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종업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우리 당의 구상을 충정으로 받들고 이곳으로 달려온 군인건설자들은 합숙건설에서 날에날마다 단숨에의 기상을 높이 떨쳐가고있다.

《시간이여, 우리를 따르라!》, 《당이 번개치면 우뢰로 화답하리!》, 《〈마식령속도〉로 폭풍쳐 내달리자!》 등의 격동적인 글발들이 전투현장에 나붙고 심장에 불을 다는 화선식선동사업이 활기를 띠고 벌어지고있다.

공사에 동원된 여러 부대의 지휘관들은 건설기계들을 원만히 가동시키고 혼합물생산능력을 부쩍 끌어올리는 한편 높이 내세운 하루공정계획을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장악지도사업을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 수행해나가며 여러 대상건설에서 위훈을 떨쳐온 미더운 군인건설자들은 합숙건물들의 기초굴착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는것과 함께 블로크찍기를 힘있게 내밀었다. 이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며 수십만장에 달하는 블로크들을 단 며칠동안에 찍어내는 위훈을 창조하였으며 골조공사에서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들에게 뒤질세라 철근가공을 맡은 군인건설자들도 이 공장종업원들에게 하루라도 더 빨리 훌륭한 합숙을 안겨주려는 일념안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골재를 비롯한 공사자재들의 운반을 맡은 군인건설자들도 싸우는 고지에 탄약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폭풍쳐 내달리는 군인건설자들의 충정에 의해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합숙건설장에서는 날에날마다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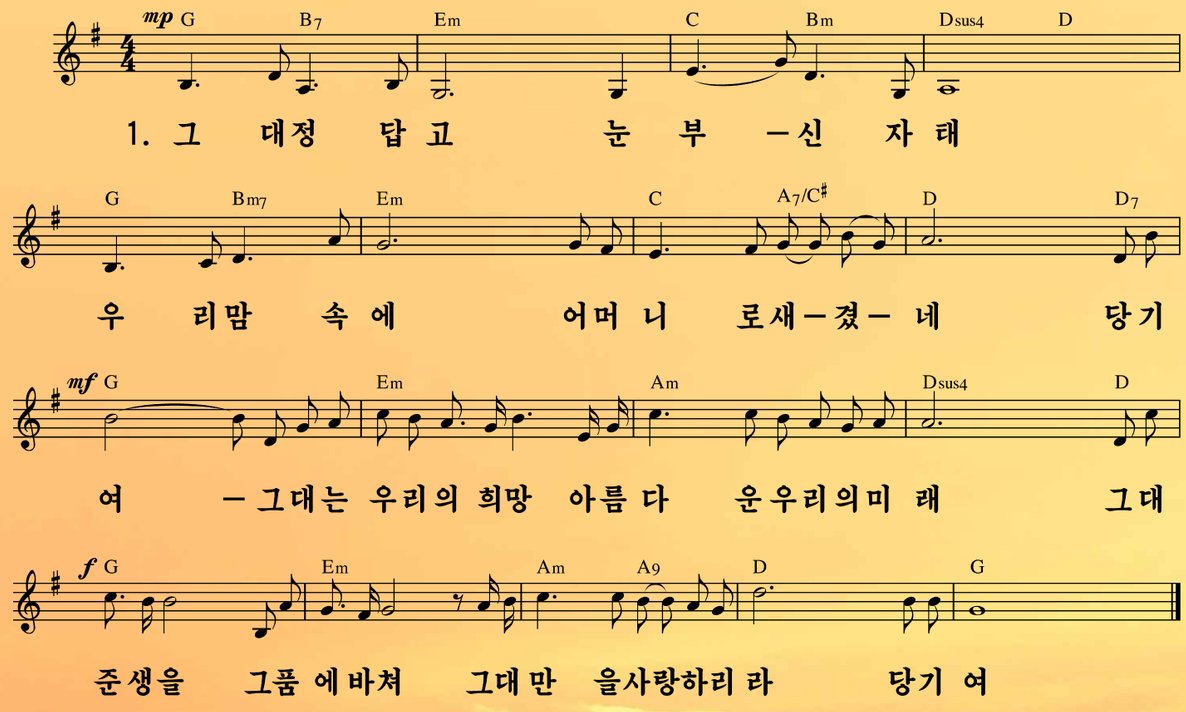
본사기자 김충성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전기를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순천화력발전소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작사 집 체
작곡 황진영

서정적으로 밝게 (♩=72)



2. 그대 불같고 줄기찬 열정
펄럭임소린 나래펴는 조국의 노래
당기여 그대는 우리 고운 꿈 만발하는 우리의 행복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대 뜻에 참되리라
당기여

3. 우린 믿노라 오직 그대를
세월 끝까지 눈비바람 막아줄 그대
당기여 그대는 우리 뭉친 힘 빛발치는 우리의 승리
영원불멸할 그대와 함께 모든 영광 맞이하리라
당기여

조선로동당은 강위력한 혁명의 참모부

조선로동당창건 68돐과 《ㅌ.ㄷ》 결성 87돐에 즈음하여 영국의 정당기관지들이 특집하였다.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기관지들은 《조선로동당창건 68돐을 축하한다》 등 제목의 글들을 게재하였다.

《워커즈 위클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독창적인 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시고 항일의 나날 그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해방후 지체없이 우리 당을 창건하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기관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을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서술하고 오늘 조선로동당은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길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라인 오브 마취》 최근호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ㅌ.ㄷ》에 뿌리를 두고 전진하여온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은 력사에 류례없는 간고한 환경속에서도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거창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었다.

참으로 조선로동당은 선군조선을 강성번영의 한길로 이끄는 강위력한 혁명의 참모부이다.

조선로동당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그이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은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안아올것이다.

영국신공산당기관지 《더 뉴 워커》에는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기층당조직을 먼저 조직하시고 그를 확대강화하여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시였기에 해방후 짧은 기간에 조선로동당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실수 있었다.

기관지들은 영국에서 조선로동당창건 68돐 경축행사들이 각 정당, 단체들의 주최로 뜻깊게 진행된 소식들도 편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오만추장국 추장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마스까트

오 만 추 장 국 추 장
까 부 스 빈 싸 이 드 페 하

나는 오만추장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최 고 인 민 회 의 상 임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영 남

주체102(2013)년 11월 17일 평 양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몸소 잡으신 삿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벌방과 멀리 떨어진 어느 한 군을 찾으시였다.

이날 마중나온 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강기슭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군안의 인민들의 생활형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이윽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강건너쪽의 벌판을 바라보시며 강냉이농사정형에 대하여 일군들에게 물으시였다.

벌판에 심은 강냉이는 괜찮게 되였지만 강기슭의 모래밭들에는 아직 강냉이를 심지 못하였다는것을 아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강을 건너가 모래밭을 보아야 하겠다고 하시며 나루배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일군들은 그만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강물의 흐름이 빠른데다가 나루배는 매우 초라하였던것이다. 일군들의 이런 심정을 헤아려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이 타고 건느는 배인데 나라고 왜 못 타겠는가고 하시며 몸소 작은 나루배에 오르시였다. 배에 오르신 그이께서는 사공에게로 다가가시여 삿대를 잡으시며 자신께서 저어보겠다고 하시였다.

얼마후 배에서 내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몸소 손으로 땅을 파보시며 강냉이농사를 잘할수 있는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자정이 넘은 깊은 밤에도

어느해 8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만종에 달하는 인민소비품본보기도안을 보아주실 때였다.

그때 그처럼 많은 량의 도안을 일일이 보아주시느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일 자정이 넘도록 집무실에 계시였다.

어느날 밤 한 일군은 밤깊도록 도안을 보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이젠 그만 쉬셔야겠다고 절절히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이제 며칠만 더 보면 되겠다고,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줄 소비품도안인데 내가 안 보면 되겠는가고 하시며 다시 도안들을 한장한장 번지시였다.

중요한 회의를 지도하시는 바쁘신 날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안들을 보아주시면서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손톱깎개와 반지를 비롯하여 우리 인민들이 리용하는 크고작은 인민소비품에는 이렇듯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어리여있다.

본사기자 강철남

점심시간에 들려주신 이야기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한평생 그 어떤 특전과 특혜도 바라지 않으시고 언제나 인민들과 꼭같이 검박하게 생활하신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주체49(1960)년 10월, 어느 한 작업장에서의 점심시간에 있은 일이다.

학생들과 꼭같이 목도채도 함께 메시고 어려운 작업을 도맡아해나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점심식사시간이 되자 밥은 여러 사람이 모여앉아 먹어야 맛이 더 난다고 하시며 학생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그이를 모시고 한자리에 둘러앉은 학생들모두는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송구스러워하는 그들을 다정히 바라보시면서 아니 왜 이러고들 있는가고, 배가 고픈데 어서 들자고 재촉하시며 자신께서 가지고오신 찬곽을 손수 펴놓으시였다.

그이의 소박한 점심식찬을 바라보는 학생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누구나 남새철이면 흔히 먹는 마늘과 무우를 가공하여 만든 몇가지 남새찬이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의 찬그릇마다에 마늘장절임을 놓아주시며 작업장에서 끓인 남새국이 구미가 돈다고, 자신께서도 남새국을 좋아하니 한그릇 퍼주시오라고 청하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이 저저마다 남새찬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이 남새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집 터밭에서 손수 가꾸신것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정원의 터밭에 남새포전을 따로 꾸려놓으시고 여러가지 남새재배시험을 하고계십니다. 나도 짬짬이 수령님의 일손을 도와 남새가꾸는 일을 하는데 아주 흥미있습니다.》

순간 학생들은 끓어오르는 격정으로 하여 목이 꽉 메여올랐다.

(수령님과 그이께서 몸소 남새농사를 하시다니?…)

학생들은 저저마다 후더워오르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해하며 수저를 들지 못하였다.

어느덧 식사시간이 끝날무렵이였다.

농장의 한 일군이 사과를 한가득 담은 광주리를 들고 찾아온것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페를 끼쳐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며 농장원들의 정성이 깃든 사과인데 모두 맛있게 먹고 일을 더 많이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때 한 학생이 자기 고향의 맛좋은 사과이름을 꼽아가며 고향자랑을 하였고 벌방에 고향을 둔 학생은 사과맛도 좋지만 자기 고향에서 나는 도마도맛도 별맛이라고 자랑하였다.

그러한 학생들의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벌방에 고향을 둔 동무가 여름철에 도마도맛이 별맛이라고 하였는데 도마도를 볼 때마다 자신께서는 어머님생각이 난다고, 우리 어머님은 제손으로 땀흘려가꾼것이 더 맛있다고 하시면서 해마다 남새밭에서 도마도를 가꾸는 일을 매우 즐겨하시였다고 하시며 추억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어머님이 고무신을 신고 도마도밭을 가꾸실 때마다 치마와 고무신에 흙물이 발리군 하였다.

내가 흙물을 씻어드리려고 하면 어머님은 그만두어라, 옷에 흙매질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땅에 심은 남새를 가꾸겠니, 땅은 사람이 땀을 흘리는것만큼 열매를 맺게 해준다, 이 밭에 이제 도마도가 주렁지고 그것을 제손으로 따서 먹을 때 봄내여름내 흙을 만지며 일한 보람이 크게 느껴질게다라고 하시며 물기가 질벅한 도마도밭에서 떠나실줄 몰랐다.

우리 집 남새밭에는 지금도 도마도포전이 있다.

나는 어머님을 생각하며 도마도포전을 정성껏 가꾸고있다.…

마디마디 심장을 울리는 그이의 말씀은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었다.

—얼마나 소박하고 근면하신 위대한분들이신가!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였지만 그것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인민적풍모를 가슴깊이 새겨안게 한 잊지 못할 점심식사시간이였다.

전광남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투쟁에 정치사업의 화력을 집중

당 결 정 집 행 과 습 보 행 군

동평양화력발전소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의 결정과 지시가 내려가면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집행대책을 세우고 분공을 구체적으로 조직하며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재포치함으로써 그것이 끝까지 관철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회의장분위기는 팽팽하였다. 상반되는 의견들이 엇갈렸다. 분쇄기교체는 예견하지 못했던것이므로 대보수를 좀 늦추어야 한다는 주장, 대보수기일을 무조건 보장하여야 한다는 주장…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 과업관철정형을 총화하고 대책을 토의하는 동평양화력발전소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협의회에서였다.

왜 의견이 각이하였는가. 년초에 세운 1호보이라대보수계획에 미분화계통분쇄기교체는 올라있지 않았다. 대보수과정에 어느 한 발전소의 폐기된 보이라에서 분쇄기를 해체해다가 교체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여 보충된 항목이였다. 그렇게 되면 설비사고를 미리막고 자가소비전력을 줄이면서도 전력생산을 늘일수 있었던것이다.

열띤 론쟁들이 거듭되던 끝에 모두의 시선이 초급당비서 구자현동무에게로 쏠렸다.

《새로운 정황이 생겼다고 뒤로 물러선다면 그 전투는 이미 패한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구보로 달려온 길을 습보행군으로 이어 당결정을 무조건 집행합시다.》

방도가 진지하게 토의되였다. 높아진 전투목표를 수행하자면 종전의 구보행군이 아니라 습보행군이 필요하였다.

회의뒤끝에 초급당일군들은 사업분담을 명백히 하고 대중속으로 들어갔다. 기적을 낳는 어머니는 대중의 정신력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정치사업의 도수를 높이였다.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자면 결정적으로 미분화계통분쇄기를 교체하여 생산토대를 튼튼히 닦아야 한다고 중요성을 해설해주기도 하고 걸린 문제도 풀어주었다. 앙양된 대중의 열의는 기적을 낳았다. 한달은 걸릴것이라던 두대의 분쇄기해체는 4일동안에 끝났다.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돌진하는것이 바로 습보행군이다. 그러자면 비상한 의지와 함께 일관성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루동안에 분쇄기본체운반이 끝나자 일부 사람들속에서 성과에 도취되여 긴장을 늦추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때에도 초급당일군들은 대중속에 들어가 진격속도를 더욱 높이도록 정치사업을 맹렬하게 전개하였다. 일군들부터가 두몫, 세몫의 일감을 지고 종전보다 몇배나 뛰고 또 뛰였다. 분쇄기설치공사가 짧은 기간에 진행되여 대보수전투의 승리가 눈앞에 온것도, 두달로 예견하였던 1호보이라과열기교체가 한달동안에 끝난것도 대고조시대 지휘관답게 습보로 내달리는 이곳 당일군들의 비상한 공격기풍이 안아온 결실이다.

당결정은 생명과 같다. 그 집행여부는 일군들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가, 어떤 자세와 립장으로 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자재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조건에서 전력생산정상화의 방도를 자력갱생에서 찾은 발전소일군들은 생산토대구축을 올해의 가장 중요한 전투목표로 내세웠다. 카바이드생산공정완비와 광재솜생산기지건설을 올해안으로 끝낼것을 당결정서에 박아넣었다. 지난해까지만 하여도 카바이드와 광재솜을 다른 단위에서 공급받아 쓰다나니 생산에 지장이 많았던것이였다.

태양절까지 카바이드생산공정을 완비한 성과에 기초하여 초급당위원회는 광재솜생산기지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건축공사와 설비제작이 동시에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난관은 많았다. 건축공사와 용해로쌓기는 큰 문제가 아니였지만 설비제작은 생각과 달랐다.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으로 건설의 대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방식을 따라배우자.)

당일군들은 기술자, 기능공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렸다. 광재솜생산설비제작의 큰 몫을 바로 그들이 맡았기때문이였다. 기술자, 기능공들과 머리를 맞대고 배우기도 하고 배워주기도 하면서 그들의 창조적지혜를 발동시켜 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부속품이 모자라면 수십리 밤길을 걸어서라도 즉시에 해결해주었다. 가정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어머니심정으로 풀어주었다. 3대혁명소조원들을 대담하게 믿고 그들에게 광재솜생산설비제작에서 나서는 기술과제들을 맡겨주었다.

결과는 좋았다. 건축공사와 설비제작 및 설치가 기본적으로 끝나고 인차 시험생산에 들어갈수 있게 되였다.

대보수와 자력갱생기지건설만이 아니다. 년초에 계획한대로 2개의 멋들어진 정각과 경기장들을 포함하는 휴식터건설을 훌륭히 완공하고 후방사업토대를 한층 튼튼히 닦아놓은것도 일군들모두가 비상한 속도로 뛰고 또 뛴 결과이다.

그렇다. 당결정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자면 당일군들부터가 습보행군을 하여야 한다. 《마식령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오늘날 이것은 더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당결정서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완강한 투쟁기풍으로 집행해나가는 이곳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이 이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향란

교대운전수가 된 사연

락랑구역 금대리당위원회 일군들

락랑구역 금대리에서는 가을한 곡식을 실어들이는 전투를 보름 남짓한 기간에 끝내여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고 다음해농사차비에 큰 힘을 넣고있다.

이 성과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을 리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기풍에서 찾아보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이신작칙은 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대중을 감동시키고 고무합니다.》

가을걷이전투가 한창이던 어느날이였다.

농산제2작업반 탈곡장에서는 긴급협의회가 있었다. 여기에는 리당일군들과 작업반의 부문당비서, 당세포비서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시급히 대책하여야 할 문제들이 토의되였는데 그중에서도 뜨락또르운전수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가동률을 높일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였다.

모임이 끝난 후 일터로 나가려던 사람들의 눈길이 한곳에서 굳어졌다.

리당비서 황보현일동무가 뜨락또르를 몰고 탈곡장을 나서더니 포전으로 가는것이 아닌가.

(뜨락또르운전수는 어디로 갔는지.)

그 의문은 휴계실의 문을 열고 충혈된 눈을 비비며 나오는 뜨락또르운전수를 보고서야 풀리게 되였다.

이런 일은 계속되였다.

얼마전 이른아침 관리위원장 허춘금동무가 가을걷이실적이 떨어지고있는 어느 한 작업반으로 가고있었다. 그런데 리당일군이 뜨락또르를 몰고 마주오고있는것이 아닌가.

일욕심이 많은 관리위원장이였건만 리당일군의 헌신적인 행동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을수 없었다. 고마왔다.

리당일군이 그 작업반의 가을걷이실적이 떨어지고있다는것을 알고 운전수와 함께 고장난 뜨락또르수리를 끝내고 밤새 많은 벼단을 운반하였던것이다.

리당일군은 며칠동안 교대운전수가 되여 그 작업반의 가을걷이실적을 올려주고는 또 다른 작업반으로 옮겨가서도 교대운전수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의 이신작칙은 그대로 말없는 정치사업이였다.

리당비서의 뒤를 따라 부비서 김인석동무와 한국실, 김관하동무를 비롯한 당초급일군들이 뜨락또르운전수들과 수리도 함께하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농장벌과 탈곡장으로 오고갔다.

벼단운반이자 낟알털기실적이였다. 결국 농장에서는 가을걷이전투를 계획하였던것보다 한주일이나 앞당겨 끝내게 되였다.

요즘은 농장적으로 가을갈이와 유기질복합비료생산이 한창이다. 여기서 앞장선 단위들을 본다면 권순후동무를 비롯한 당초급일군들이 교대운전수가 되여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높이고있는 단위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려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열의를 말해주는듯 리안의 모든 뜨락또르가 경쟁적으로 발동소리를 울리며 달리고있다.

결국 리당일군들은 물론 작업반의 당초급일군들 누구나 교대운전수가 된셈이였다. 지금은 선동원들도 뜨락또르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있다.

이것은 당일군들과 당초급일군들의 투쟁기풍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이다.

본사기자 장철범

신들메를 더 단단히 조이고

고원철도분국 당위원회에서

얼마전 고원철도분국 당위원회에서는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일군들의 협의회가 있었다.

협의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온 한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는 길에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온 분국당위원회일군들이였다.

일군들의 머리속에는 올해에 진행한 전투들중에서도 그중 어려웠던 립연천다리보수때의 일이 생생히 떠올랐다.

사실 립연천다리보수는 오래전부터 벼르면서도 선뜻 손을 대지 못하던 공사대상이였다. 그만큼 이 다리를 보수하는데는 많은 품이 들어야 했다. 이런데로부터 분국당위원회 책임비서로 갓 임명된 김명수동무가 립연천다리보수를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전투목표에 쪼아박고 짧은 기간에 끝내자고 하였을 때 일부 일군들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분국자체로는 힘에 부치다는것이 그들의 견해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책임비서의 마음은 무거웠다.

앞채를 메고나가야 할 일군들이 무조건 해야 한다는 립장에 서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웠다.

그 다리로 하여 장마철이면 렬차운행에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있다는것을 알면서도 작업량이 방대하다고 접어들 용단을 내지 못하는것은 혁명임무수행에 대한 결사의 각오가 부족하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실천을 통하여 일군들의 일본새를 바로잡아주는것이 필요하였다.

분국당위원회 책임일군을 책임자로 하는 돌격대가 조직되였다.

김명수동무는 다리보수전투장에 자기 위치를 정하고 언제나 앞채를 메고 전투를 지휘하였다.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면서 진격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책임일군의 일본새는 일군들을 각성시키고 분발시켰다.

책임일군의 뒤를 따라 분국안의 일군들이 떨쳐나섰다. 부족되는 자재도 일군들이 뛰여다니며 해결하였다. 리영국, 박성일동무들이 많은 걸음을 걸으며 세멘트와 혼석, 막돌 등을 해결하였다. 분국안의 일군들은 집에서 음식들도 마련하여가지고나와 돌격대원들을 고무해주었다.

이렇게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뛰니 그렇게도 어렵게 생각되던 립연천다리보수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났다. 립연천다리는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떡없게 되였다.

보수된 다리우로 렬차를 지나보내며 분국안의 일군들이 느낀것은 무엇이였는가.

바로 자신들이 결사의 각오를 안고 뛸 때 올해신년사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는것이였다.

일군들이 새로운 잡도리를 가지고 일판을 벌려나가는 과정에 분국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현흥역과 부래산역이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 년중 3만정의 침목 생산, 고원—전탄사이철길과 룡흥강다리를 표준철길, 표준철다리로 만들고 올해 28건의 새 기술혁신안 창안도입, 1월부터 현재까지 화물수송계획 102%로 넘쳐 수행…

이미 해제낀 일들도 적지 않지만 아직 미진된 일들은 무엇인가,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전투에서 통장훈을 부르자면 어디에 기본화력을 집중하고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할것인가.

진지하게 진행한 일군들의 협의회에서 분국당위원회 책임일군이 다시금 강조한것도 일군들이 투신력, 실천력을 더욱 높이는 문제였다.

(단위를 이끌어나가는 기관차로서 신들메를 더욱 단단히 조이자!)

협의회장을 나서는 일군들의 심장은 이렇게 끓어번지였다.

일군들은 자신들의 심장부터 김정일애국주의로 펄펄 끓이며 올해전투의 승리적결속을 위한 격전장들로 달려나갔다.

분국당위원회 비서들인 리창룡, 김명근동무들은 기술혁신전투장과 문화회관건설장으로, 부부장들인 리영국, 심명학동무들은 금사역과 문필역으로…

본사기자 오철권

생산을 비약시킨 일군들의 발걸음

신의주편직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정책은 대중이 그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안받침될 때 비로소 성과적으로 관철될수 있습니다.》

신의주편직공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자면 로력의 긴장성을 풀어야 하였다.

공장초급당비서 송미옥동무는 지배인 김광일, 기사장 김정학동무들과 함께 로력문제를 풀기 위한 방도를 찾아나갔다.

일군들은 그전에 공장에서 일하던 일부 고급기능공들을 초소에 다시 세워 한몫하도록 하기 위한 문제에 눈길을 돌리였다. 그리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과 로동자들의 기능을 높이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로 하였다.

초급당비서와 지배인은 그전에 공장에서 일하던 일부 고급기능공들과의 사업에 품을 들이였다. 그들은 하루일을 끝낸 다음 고급기능공들이 살고있는 곳을 찾아 많은 걸음을 걸었다.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앉아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공장의 벅찬 현실에 대하여서도 알려주고 혁신의 날과 날을 수놓아가던 어제에 대하여서도 상기시켜주었다. 공장의 오늘뿐아니라 더 좋은 래일을 마음속으로 설계하며 고급기능공들을 찾아 걷는 일군들의 발걸음은 끝없이 이어졌다.

한때 공장을 떠났던 일부 고급기능공들이 정든 공장에 한생의 소중한 땀을 아낌없이 바칠 새로운 결심을 안고 다시 공장에 출근하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고급기능공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기 위한 사업을 안받침하면서 그들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과 로동자들의 기능을 높여주는 사업에 발벗고나서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편직제품생산에 있는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면서 로동자들의 기능을 높여주는 사업과 기술혁신을 하는데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하게 되였다.

초급당일군들은 기사장을 비롯한 행정경제일군들과 함께 기술자, 고급기능공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시키기 위하여 뛰고 또 뛰였다. 그들이 기술혁신에 필요한 부속품이 없어 안타까와할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뛰여다닌 사람도 초급당일군들을 비롯한 공장일군들이였다.

일군들이 발이 닳도록 뛰면서 도와주는데 고무된 공무작업반의 김석근, 가공직장의 로명제, 대환기직장의 리영철동무를 비롯한 기술자들은 전압안정설비를 제작하고 손로동으로 하던 작업공정들을 기계화하여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고급기능공당원들이 기술기능수준이 어린 로동자들을 담당하여 배워주도록 당적분공도 주면서 당원들과의 사업을 그들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잘해나갔다. 기술학습의 날을 실속있게 운영하여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제품품평회같은 것도 자주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아름차다고 하던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9월말까지 114.3%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이 공장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과업 관철을 위한 방도를 바로 찾아쥐고 그 실현을 위해 일군들이 발이 닳도록 뛸 때 생산에서 비약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종석

세포등판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떨쳐가도록 돌격대원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세포등판건설 함경남도려단 단천시대대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대중운동분위기조성에서 틀어쥔 세가지 고리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대중운동의 분위기조성은 그 성과를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고리이다.

최근 2년 남짓한 기간에 20여개 단위가 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높은 실적을 낸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을 취재하면서 우리는 대중운동의 분위기조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광범한 군중이 이 운동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정치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이곳 련합기업소당위원회가 진행해온 대중운동의 분위기조성을 세 측면에서 분석할수 있다.

우선 직관선동을 중시한것이다.

오늘 이곳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사상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직관선동이다. 기업소정문으로부터 직장들에 이르기까지 《3대혁명붉은기쟁취전투장》,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전투장》, 《3중3대혁명붉은기쟁취전투장》이라고 쓴 간판들이 나붙어있고 구내의 곳곳마다에 전개된 붉은기들과 구호들, 속보판들, 작업장은 물론 직장사무실, 복도, 휴계실들에 게시된 여러가지 형식의 직관물들이 보는 사람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일부 일군들은 사회적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서 직관선동의 위력에 대해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언제인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궐기단위인 어느 한 직장에 나갔던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일군은 대중운동에서 직관선동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였다.

대중운동의 분위기가 좋은 단위와 이 단위와의 차이가 바로 직관선동에서의 차이였던것이다. 직관선동에 큰 힘을 넣지 않으니 직장의 분위기는 매우 저조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자면 무엇보다도 사회적분위기를 고조시켜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바로 직관선동이다. 직관선동을 중시하자.)

당위원회책임일군은 직관선동을 통하여 사회적분위기를 고조시키는것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틀어쥐고나가기로 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일군들부터 앞장에 서서 직관선동의 위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들을 면밀히 짜고들었다. 부장 안명수, 부부장 강기남, 부원 최성숙동무들을 비롯한 선전선동부일군들을 내세워 담당단위의 당, 행정, 근로단체일군들에게 직관선동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과 함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관련한 실무적문제들을 하나하나 알려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해당 단위들에 나가 적극 도와주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일군들은 지난 시기 직관선동을 해당 부서의 일군들만 하는것으로 생각하던 관점에서 벗어났다. 직관선동은 당일군이라면 누구나 다 관심하는 문제로 되였다. 그것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위한 사회적분위기조성에서 더욱 높이 발현되였다. 이것이 련합기업소당위원회가 사회적분위기조성에서 선차적으로 중시한 점이다.

다음으로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계기와 공정을 옳게 리용하는것을 사회적분위기조성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였다.

그러면 이곳 당위원회에서는 계기와 공정을 어떻게 리용하였는가.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집행위원회확대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를 놓고보자.

당위원회책임일군은 해당한 토의사업에 앞서 우선 단위들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수행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그리고 단위들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와 부족점들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결부시켜 분석총화한다. 이것은 그대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을 바로세워주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모임때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성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놓고 일군의 자격과 능력을 평가하며 일군들을 각성시키고 분발시키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가 계기와 공정을 옳게 리용하여 사회적분위기를 고조시킨 사실은 많다.

해당 단위가 3대혁명붉은기판정을 받을 때 기업소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그 단위에 큼직한 축하속보판들을 보내도록 하여 그것을 판정장소들에 쭉 늘여세워 대중운동의 분위기를 고조시킨 사실, 3대혁명붉은기수여모임때마다 각급 당, 행정일군들을 참가시켜 이 운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경쟁열의를 높여준 사실, 3대혁명기수들을 행사때마다 주석단과 앞자리에 앉혀 긍지감을 높여준 사실, 3대혁명붉은기단위들을 우선적으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와 평양견학에 보내고 영예사진소개, 표창, 수훈 등 여러 계기와 공간을 대중운동과 결부시켜 평가총화사업을 잘 짜고든 사실…

이런 사업은 련합기업소안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사회적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으며 대중운동의 성과를 안아왔다.

다음으로 사회적분위기조성에서 본보기창조와 일반화를 들수 있다.

본보기창조에서 련합기업소당위원회가 중시한것은 우선 본보기단위선택부터 잘한것이다. 앞선 단위가 아니라 조건이 제일 어려운 단위를 정한것이다. 이런 단위를 준비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더 많은 단위들이 신심있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본보기단위로 내화물직장을 선택한 경우를 놓고보자.

사실 내화물직장은 생산조건과 환경이 그 어느 단위보다 어려운 단위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일군들의 관심도 적었고 이 직장종업원들도 신심을 가지지 못하고있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이런 직장을 본보기로 정하고 여기에 큰 품을 넣었다. 당위원회가 적극 도와주고 직장종업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는 과정에 놀라운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였다. 하여 내화물직장은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결의목표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보여주기사업을 통하여 내화물직장의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였다.

내화물직장에서 타오른 3대혁명의 불길은 온 기업소를 3대혁명의 열풍으로 부글부글 끓게 하였다.

련합기업소의 아래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서는 내화물직장이 하는데 우리라고 왜 못하겠는가라고 하며 대중운동에 너도나도 뛰여들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번 본보기단위를 조건이 어려운 로루직장으로 정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당위원회일군들은 어려운 단위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앞장에 서도록 함으로써 온 련합기업소에 대중운동의 열풍이 꽉 차넘치게 하였다.

그 과정에 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단위들이 늘어나게 되였으며 올해에만도 7개 단위가 3대혁명붉은기를, 2개 단위가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다.

본보기창조와 일반화, 그것은 사회적분위기조성에서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부속품생산에서 련일 혁신

옹진군농기계작업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기계와 농업생산설비의 리용률과 가동률을 높이자면 그에 대한 수리정비사업도 잘하여야 합니다.》

옹진군농기계작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년간계획을 넉달이나 앞당겨 완수한 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겨울철 뜨락또르와 농기계수리를 위한 부속품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작업소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호소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수리부속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관철에로 생산자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지배인 백경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당면한 영농공정에 따르는 뜨락또르와 농기계수리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드는 한편 계획외 6개월분에 해당한 수리부속품을 더 생산하기 위한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계획수행기간 작업소에서는 작업반별, 기대별, 개인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뜨락또르수리작업반을 비롯한 작업소의 모든 작업반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미풍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부속품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가공작업반, 차수리작업반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깐지게 하여 맡겨진 부속품생산과 수리과제를 기한전에 넘쳐 수행하였다. 지난 40여년을 하루와 같이 성실하게 일해오고있는 차수리작업반의 오세곤, 가공작업반의 심상열동무를 비롯한 혁신자들이 대오의 앞장에서 작업반원들을 이끌며 생산자대중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로 하여 년간계획을 훨씬 앞당겨 끝낸 작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겨울철 뜨락또르와 농기계수리를 위한 부속품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작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치렬한 생산돌격전을 벌려 100종에 6 000개의 뜨락또르부속품, 40종에 1만 5천개의 농기계부속품을 생산함으로써 계획외 6개월분에 해당한 부속품을 마련해놓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파기자 리승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일념으로 생산을 다그치고있다.
—묘향산의료기구공장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창조되는 혁신의 불길

체육강국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각지 체육단들에서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각지 체육단들에서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중앙체육단들과 도체육단, 기관, 기업소체육단들에서 나라의 전반적인 체육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고 아시아와 세계패권자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치렬한 경쟁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체육을 발전시키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며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민족의 우수성을 키워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압록강체육단에서는 올해 국제국내경기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승산이 있고 파악이 있는 종목들에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우리 선수들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독특하고 새로운 기술과 전술을 확립하는데 중심을 두고 누구나가 새 기술, 새 기록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주도세밀하게 짜고들고있다.

기관차체육단의 일군들은 종목별훈련장들에 나가 모든 감독들과 선수들이 양각도체육촌을 마련해주신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김정일**애국주의를 발휘하여 선군조선을 체육강국으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모든 감독, 선수들은 교수훈련강령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투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날 세운 훈련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 기풍을 확립해나가고있다.

애국의 구슬땀으로 충만된 훈련열풍은 세계적인 녀자유술강자가 배출된 평양기계대학체육단에서도 세차게 몰아치고있다.

이 체육단의 종목별감독들은 실력을 부단히 높이며 과학적인 훈련계획에 기초한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고 그것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엄격히 실천해나가고있다.

어머니조국에 승리의 보고를 드리고 세계녀자유술계의 최절정에 오른 설경선수처럼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쳐갈 불타는 일념을 안고 자기들의 온넋을 깡그리 바쳐가고있는 선수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시간이 갈수록 좋은 훈련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체육에서도 과학을 중시하고 체육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켜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김형직사범대학체육단, 장철구평양상업대학체육단을 비롯한 많은 체육단들에서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설비들을 훈련장 등에 갖추어놓고 교수훈련의 과학화, 정보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체육단에서는 대학의 책임일군들이 앞장에서서 체육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마련해주고 체육단일군들과 모든 체육인들이 세계적인 체육발전추세를 잘 알고 훈련과 경기를 과학적으로 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올해 정초부터 판모봉체육단, 김책제철련합기업소체육단, 신의주경공업대학체육단을 비롯한 여러 체육단들에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 선수들의 생활조건과 훈련조건개선에서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김종태해주제1사범대학체육단에서는 높아지는 감독, 선수들의 훈련열의에 맞게 산중훈련기지를 잘 꾸려놓고 선수들의 훈련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평양체육단, 무역성체육단, 수산성체육단, 평양철도국체육단의 일군들과 감독들은 조국의 영예를 금메달로 빛내이는 체육강자들을 키워내는 체육단은 따로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국가대표선수를 키워내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내밀고있다.

여러 국제국내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이곳 일군들은 기어이 세계패권을 쥐고야말 선수들의 훈련열의를 끊임없이 북돋아주는것과 함께 종목별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있다.

다른 체육단들에서도 세계적인 강자들을 키워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체육기술을 빠른 기간에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세우기 위한 경쟁바람,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철호

평양철도국체육단 일군들이 선수들속에 들어가 훈련과 경기에서 성과를 이룩하도록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보건성아래 각지 공장로동계급

전례없는 성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건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의약품과 의료기구생산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지난 1월 대성산종합병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우리의 보건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산원유선종양연구소가 훌륭히 일떠선 문수지구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옥류아동병원과 류경구강병원을 건설해주시려 은정깊은 조치를 거듭 취해주시였다.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세계를 가슴깊이 절감한 보건성아래 각지 공장의 로동계급은 그 어느때보다 앙양된 열의를 안고 련일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뜻깊은 올해에 전례없는 성과를 창조하였다.

보건성의 책임일군들은 의약품, 의료기구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부상 강응찬, 국장 리영철동무를 비롯한 성의 일군들은 들끓는 전투현장에 자주 내려가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해 애써 노력하는 한편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의 힘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의료기구생산부문에서는 당창건기념일까지 관리국적인 년간 공업총생산액계획을 완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개성영예군인의료기구공장, 묘향산의료기구공장, 신의주구강재료공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이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끝냈다.

특히 함흥영예군인의료기구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벌려 생산공정을 일신하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0배나 되는 수십만켤레의 질좋은 수술용고무장갑을 만들어냈다.

성의 일군들은 해당 단위들에서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고 다음해생산전투를 본격적으로 벌리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다그쳐나가도록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현재 평양의료기구공장에는 가까운 몇해어간에 전국의 도, 시, 군인민병원들에 질좋은 수술용가위와 칼, 핀세트 등 다양한 종류의 집게류들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였으며 남포의료기구공장에는 보다 현대화된 유리주사기와 체온계생산공정이 튼튼히 꾸려졌다.

혁신의 불길은 제약공업부문에서도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신의주마이싱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수십건의 새 기술을 받아들여 인민경제계획을 넘쳐수행함으로써 지난 4년동안 이룩해온 최고생산년도수준을 올해에도 또다시 돌파하였다.

남포어린이약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설비의 현대화를 실현한데 기초하여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기운차게 울려 지난 10월까지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끝냄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수십종의 의약품들을 옥류아동병원에 보내주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흥남제약공장현대화 1계렬공사가 지금 마지막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보건성 제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각지 공장로동계급은 의약품생산계획을 월별로 어김없이 수행해온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박차를 가하여 11월말까지 관리국적인 공업총생산액계획을 기어이 완수할 결의드높이 총공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보건성 고려약생산부문의 일군들도 우리 나라에 풍부한 여러가지 약초와 약재로 질좋은 고려약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가고있다. 이곳 일군들의 빈틈없는 조직사업에 의해 각지 고려약공장들에서는 올해에 삽주, 지황을 비롯한 여러종의 수많은 약초들을 조직배양하여 약초생산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중구, 모란봉, 안주, 신양, 해주, 벽성고려약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이 어렵고 불리한 조건에서도 지난 10월까지 년간공업총생산액계획을 완수하였다.

평천고려약공장에서는 올해 공업총생산액계획과 지표별계획을 제일먼저 끝냄으로써 전국의 앞장에 선 단위로서의 영예를 다시금 힘있게 떨치였다.

본사기자 방경찬

대고조전투장들에서 경제선동활동 활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제선동은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위력한 수단입니다.》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는 경제선동활동이 전국각지의 대고조전투장들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아래의 각지 탄광들에 나간 피바다가극단, 국립연극단, 국립민족예술단, 국립교예단을 비롯한 중앙예술단체의 예술인들은 석탄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탄광로동계급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이에 앞서 중앙예술단체의 예술인들은 강계시, 만포시, 자성군, 중강군, 위원군, 초산군, 우시군을 비롯한 자강도의 여러 시, 군들에서 공장, 기업소의 로동계급과 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수십차에 걸쳐 현장경제선동을 진행하였다.

평안남도예술단의 예술인들은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아래 여러 탄광들에 나가 혁신자축하공연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현장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다른 도예술단들의 예술인들도 자기 도의 대고조전투장들에서 근로자들을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고무추동하는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각 도예술선전대들에서도 석탄생산으로 들끓는 각지 탄광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기동성있는 경제선동활동을 벌려 근로자들을 로력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평안남도예술선전대, 평안북도예술선전대, 함경남도예술선전대, 함경북도예술선전대의 배우들은 자기 도에 있는 공장, 기업소들과 탄광들에서 혁명의 북소리, 투쟁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황해남도예술선전대, 황해북도예술선전대, 강원도예술선전대, 남포시예술선전대, 개성시예술선전대의 배우들은 자기 도와 시에 있는 협동농장들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힘있게 울림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의 로력적성과를 고무추동하고있다.

평양시예술선전대와 자강도예술선전대의 배우들은 청춘거리체육촌개건보수공사장에서 건설자들에게 신심과 락관을 북돋아주는 경제선동활동을 벌리였다.

공로자명배우예술선동대의 관록있는 배우들도 전국각지의 중요생산전투장들에 나가 기동성있는 현장경제선동활동을 벌리였다.

이들의 현장경제선동공연을 본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5대혁명가극의 노래들과 추억에 남는 영화들의 노래를 들으니 정말 감회가 깊다, 1970년대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반영이 제기되고있다.

미술부문의 창작가들도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들에서 직관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 창조와 비약의 기상이 나래치게 하고있다.

얼마전에도 중앙미술창작사, 평양시미술창작사, 철도성미술창작사의 창작가들은 청춘거리체육촌개건보수공사장에서 혁신자초상소묘, 현지속사, 서예직관선동을 힘있게 벌려 건설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고조시켰다.

문화성의 해당 부서들에서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고 정신력을 최대한 폭발시키는 경제선동활동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더 참신하게 벌려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는 경제선동활동은 계속되고있다.

본사기자 백성근

비약의 열풍 나래치는 교과서생산기지

교육도서인쇄공장에서

얼마전 우리는 새 학년도 교과서생산이 힘있게 벌어지는 교육도서인쇄공장을 찾았다.

공장은 년말생산전투로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과정안이 반영된 새 교과서생산에 온 공장이 떨쳐나섰다.

공장에 달려나와 생산자들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는 교육위원회 일군도 있었다.

이들모두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새 력사를 펼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높은 교과서생산실적으로 받들어갈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장은 백두산3대장군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이다.

조국의 미래인 새 세대들을 위해 불멸의 자욱을 새기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은 만부하의 동음울리는 륜전기재들에도 뜨겁게 어려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보아주신 평판인쇄기 6호기를 정성껏 관리하며 날마다 생산실적을 높여가는 평판직장 기계3작업반 기대장인 김원훈, 조장 김광식동무들의 혁신적성과는 생산자들의 열의를 적극 북돋아주고있었다. 기계2작업반의 기대공들도 륜전기의 관리와 운영을 잘하여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할 확고한 신심에 넘쳐있었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은 마감공정을 담당한 제책직장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었다. 서로 키돋움하며 오르는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도표가 이들의 드높은 생산열의를 그대로 보여주고있었다.

혁신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직장의 초급일군도 날마다 높아지는 생산실적을 두고 흐뭇해하고있었다.

종합2작업반 반장 김영희동무는 작업반원들속에는 다음해에 새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는 자식들을 둔 학부형들도 많다고 말하였다.

모두가 자기 자식들을 위하는 심정으로 교과서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여간다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후대교육을 조국의 미래를 위한 영예로운 사업으로 여기고 교과서생산에 구슬땀을 바쳐가는 이곳 종업원들의 애국의 마음을 읽을수 있었다.

후대들에게 안겨줄 교과서에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검사공들도 긴장하게 일하고있었다. 완성된 제품들마다에 검사공들의 깐진 일본새와 책임성이 비껴있었다.

교과서들의 내용들이 모두 새 세대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새롭게 구성된것으로 하여 무척 호기심을 자아냈다.

부기사장 김영수동무는 올해 생산계획은 문제없다고 확신에 넘쳐 말하는것이였다.

공장에서 만난 교육위원회 일군이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생전에 몸소 긴장한 종이문제를 풀어주시고 교과서생산을 중단없이 진행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고, 바로 그 사랑속에 마련된 종이로 교과서를 생산하고있다고 말하는 교육위원회 일군도 뜨거운 감동에 젖어있었다.

사연도 깊은 교과서들이여서 정녕 무심히 볼수 없었다.

새 학년도가 오면 조국의 북변으로부터 외진 섬마을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 그 은정이 어린 교과서들을 모두 받아안게 된다.

생산의 동음이 힘차게 울려퍼지는 교과서생산기지에서 우리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았다.

공장문을 나서는 우리의 눈앞에는 다음해에 새 교과서를 받아안고 기쁨에 넘쳐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꽃대문에 들어서는 새 세대들의 밝은 모습이 금시 어려오는것만 같았다.

본사기자 공로혁

자연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신 10돐에 즈음하여 자연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발표회가 18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였다.

자연보호부문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이 참가한 발표회에서는 정영남 조선자연보호련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92(2003)년 10월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시여 새세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고전적로작은 부강조국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어버이장군님의 과학기술중시사상과 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더욱 빛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라의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적극 늘여나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발표회에는 전국의 산림, 식물, 원림, 수산자원부문과 토지, 물, 지하자원보호부문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연구한 가치있는 180여건의 론문이 제출되였다.

낮은산지대에서의 땔나무림조성과 광산에서 미광의 재자원화를 위한 연구론문들이 실천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력발전소에서 물자원의 최량관리를 위한 실시간류출조절체계개발과 그 응용, 백두산지구의 동물종다양성에 대한 연구 등도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발표회에서는 우수한 론문을 내놓은 참가자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발표회는 나라의 자연보호사업을 새로운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였다.

【조선중앙통신】

후방가족된 긍지

신천군 발산협동농장에는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강명철동무의 가정**과 **김성철동무의 가정**이 있다.

조국이 있어야 가정도 있고 앞날의 행복도 있다는것을 심장깊이 새긴 그들은 자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당의 선군령도를 총대로 받들어나가는데 청춘의 값높은 삶이 있다는것을 깊이 심어주었다.

강명철, 김성철동무들의 자식들은 부모들의 당부대로 모두 중학교를 졸업하는 차례로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다.

전투정치훈련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자식들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강명철, 김성철동무들은 후방가족이 된 긍지를 안고 당정책관철의 앞장에 설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그들은 인민생활향상의 주타격방향을 지켜선 긍지를 안고 농업근로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정연화

도이췰란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건연단 회장에게 명예의학박사학위 수여

도이췰란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건연단 회장 알프레드 홀츠그래웨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예의학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의식이 1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진내각부총리, 강하국보건상, 강춘금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서기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결정이 전달된 다음 도이췰란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건연단을 내오고 여러 분야의 의학과학기술교류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심장혈관, 흉부, 뇌신경외과발전에 이바지한 알프레드 홀츠그래웨회장에게 명예의학박사학위가 수여되였다.

조선과 에짚트 두 나라 정부사이의 2013-2015년도 문화협조집행계획서 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에짚트아랍공화국 정부사이의 2013-2015년도 문화협조집행계획서가 18일 평양에서 조인되였다. 조인식에는 우리측에서 황호남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부문 일군들이, 상대측에서 이만 무스타파 아브두아흐마드 주조 에짚트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황호남부위원장과 이만 무스타파 아브두 아흐마드특명전권대사가 집행계획서에 수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는 대가정의 한식솔

‖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자 장옥순동무의 가정에서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네 아버지가 살아있대도 너를 이렇게 어엿하게 키우지 못했을게다.》라고 하며 눈물로 두볼을 적시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니, 믿어주세요. 저는 이 세상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영원히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의 딸로 보답의 한길만을 걷겠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얼마후인 2011년 12월, 장옥순동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보에 접하게 되였다.

피눈물속에 아버지장군님을 부르며 장옥순동무는 어떻게 날이 가고 해가 바뀌는지 몰랐다.

그러던 지난해 1월,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텔레비죤화면에서 뵈옵게 된 장옥순동무는 남포혁명학원시절이 돌이켜져 눈물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날 그는 어머니에게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어머니, 제가 부모잃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울수 있을가요?》

어머니는 한순간 말이 없었다.

《아직 아이를 낳아 키워보지 못한 네가 부모잃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울수 있겠느냐?》

《아버지장군님께 다하지 못한 충정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바치며 그이의 어깨우에 실리는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싶어요.》

어머니는 눈굽을 찍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얼마전에 장옥순동무와 가정을 이룬 제대군인 오금철동무도 적극 지지해나섰다.

그때로부터 며칠후 장옥순동무는 부모잃은 5명의 아이들을 자기 집에 데려왔다.

삶의 목소리

장옥순동무와 만난 우리는 그에게 어떻게 되여 5명의 어린이들을 단번에 데려오게 되였는가고 물었다.

《어디에 부모잃은 아이들이 있다면 이제라도 더 데려다 그들의 어머니가 되고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도착하니 병원에서 의사들이 와 기다리고있었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끝나자 온 가족이 모여앉아 그들에게 새로 지어줄 이름을 골랐다.

《저는 이들을 모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키울 결심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도 〈오금총〉, 〈오금폭〉, 〈오금탄〉, 〈오금되〉, 〈오금리〉라고 지었으면 합니다.》

장옥순동무의 그 말에 모두가 기뻐하였다. 장옥순동무와 그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위해 온넋을 깡그리 쏟아부었다.

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리광호동무를 비롯한 련합기업소일군들은 아이들을 위한 영양식품공급체계를 세우고 매달 애로되는 문제가 있을세라 풀어주었다.

장옥순동무가 일하는 작업반, 남편의 직장, 마을에서도 새옷, 당과류 등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유치원교양원들은 아이들의 얼굴에 한점의 그늘이라도 비낄세라 살뜰히 보살펴주었다.

얼마전 장옥순동무는 예술소품을 준비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련합기업소의 로보수전투장을 찾아갔다. 쉴참이 되자 아이들은 로동자들앞에 나섰다.

《총폭탄되리!》라는 말로 시작된 아이들의 공연은 처음부터 로동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독창 《그리움은 끝이 없네》를 들을 때에는 로동자들모두가 눈굽을 훔치였다.

이어 노래 《불타는 소원》이 5중창으로 울려퍼지였다.

…

우리 운명 우리 행복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천만자식 소원은 하나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

공연이 끝나자 로동자들은 저마다 달려나와 《이 애들이 우리의 심장의 피를 더욱 끓게 해주었소.》라고 하며 아이들을 높이 추어올리였다. 그리고는 다시 로보수전투에 달라붙었다.

그날 밤 장옥순동무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어머니의 기쁨과 보람이란 바로 이런것인가?…)

…

장옥순동무는 잠시 이야기를 끊더니 눈굽을 훔치였다.

우리는 아이들을 만나보기 위하여 그의 집을 찾았다. 마침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와있었다.

《제 이름은 오금총입니다.》

이어 아이들은 차례로 자기 이름을 불렀다.

우리는 장옥순동무의 어머니에게 식구가 몇인가고 물었다.

그때였다.

오금폭이 한발 나서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김일성**대원수님, **김정일**대원수님,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과 한식솔을 이루고 삽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옳지요?》하며 장옥순동무의 품에 안겨들었다.

장옥순동무는 눈굽을 훔치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옳다, 옳다.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계시며 너희들의 고운 꿈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꽃피워주신다.》

장옥순동무의 집을 나서는 우리의 귀전에서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김일성**대원수님, **김정일**대원수님,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과 한식솔!》

그것은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삶에 대한 자랑높은 선언처럼 가슴속에 깊이깊이 파고들었다.

진정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시고 꽃피워주신 사회주의대가정에 대한 찬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사랑과 정으로 더욱 활짝 꽃펴날 내 조국에 대한 찬가였다.

본사기자 로주봉

《유신》독재부활에 대중적항쟁으로 맞서야 한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유신》독재가 공공연히 되살아나는 속에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살벌한 폭압소동이 일고있다.

피뢰보수패당은 그 무슨 내란음모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여 통합진보당 성원들을 체포구속하고 그들에 대한 재판놀음을 벌리고있는가 하면 《종북》이니 뭐니 하며 이 당을 강제해산시키려 하고있다. 또한 당치않은 구실을 붙여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의 합법적지위를 박탈하였으며 전국공무원로조(전공로)가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야당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렸다고 떠들면서 이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하였다.

진보적언론인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를 폐간시키기 위한 책동에도 열을 올리고있다. 남조선에서 진보적정당들과 단체, 언론들이 무차별적으로 탄압당하고있는것은 과거 《유신》독재시대에나 찾아볼수 있는 피비린 광경이다.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현 피뢰집권세력의 악랄한 폭압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남조선사회는 민주주의냐 《유신》독재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 《유신》독재통치를 그대로 재현하는 현 피뢰집권세력의 망동은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피뢰당국의 파쑈적탄압은 민주주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을 가로막고 날로 심화되는 통치위기에서 벗어나며 장기집권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흉악한 기도의 발로이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당시 보수패당이 희세의 사기협잡과 모략으로 권력의 자리를 가로챈 대선불법개입사건의 추악한 내막이 낱낱이 드러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들과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 단체, 인민들은 선거무효, 정보원해체, 민주수호의 함성을 더욱 높이고있으며 그것은 보수패당을 막다른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인민대중의 반《정부》진출앞에 극도의 집권위기를 느낀 보수패당은 《유신》독재의 부활에서 살길을 찾으면서 진보적정당들과 단체들을 탄압말살하기 위한 전면적인 폭압공세에 나서고있다. 여기에는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광란적인 탄압으로 저들에게 쏠린 규탄의 눈초리를 딴데로 돌리고 정치적반대파들을 모조리 제거함으로써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실현하려는 흉계가 깔려있다.

남조선에서 《유신》독재의 부활은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는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피뢰집권자는 《유신》잔당들을 권력의 요직에 들여앉히고 청와대의 직할통치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대내, 대외정책결정과 집행을 모조리 거머쥐였다.

또한 정보원을 《정권》안보의 도구로 내세우고 정치적반대파들에 대한 사찰, 수사, 처형을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국회》는 물론 야당들의 정치활동까지 닥치는대로 탄압하면서 종신집권의 망상을 추구한 《유신》독재자의 망동그대로이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은 말그대로 눈이 있어도 볼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수 없으며 입이 있어도 말할수 없고 손발이 있어도 움직일수 없는 중세기의 암흑사회를 방불케 하고있다. 피뢰보수패당의 파쑈적란동은 사회의 민주화와 진보적발전을 저해하는 용납 못할 반민주적범죄행위이다.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피뢰보수패당의 파쑈적탄압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련북통일지향을 억누르고 조국통일위업의 전진을 가로막기 위한 반민족적파쑈폭거이다.

조국통일은 겨레의 숙원이다. 더우기 북남관계가 파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오늘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지향은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련북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은 애국적인것으로서 적극 장려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유신》독재가 되살아나고있는 남조선에서는 민족의 단합과 북남관계개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주장하는 의로운 단체들과 인사들이 《종북》세력으로 몰려 가혹하게 탄압당하고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폭압만행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피뢰패당은 자주통일운동의 앞장에 선 범민련 남측본부를 송두리채 없애버릴 악랄한 기도밑에 얼마전이 단체성원들의 사무실과 집들에 대한 압수수색소동을 요란하게 벌려놓았으며 70살이 넘은 의장대행과 불치의 병을 앓고있는 조직위원을 야수적으로 강제련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 단체의 사무차장에게는 수갑을 채워 장시간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온갖 정신적, 육체적고통을 가하였다. 그들이 탄압의 대상이 된 리유는 단 하나 련북통일을 지향한것이다.

지금 피뢰당국의 파쑈폭압의 첫째가는 과녁으로 되고있는 통합진보당과 전교조, 《자주민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유신》독재시기 남조선에서는 평화, 통일이라는 말만 해도 《리적》, 《용공》으로 몰려 가차없는 처형의 대상이 되였다. 그 본때대로 지금 피뢰보수패당은 《종북세력을 축출》해야 한다느니,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느니 하고 게거품을 물고 고아대면서 진보민주세력을 모조리 말살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제반 사태는 남조선에서 인민들이 말만 들어도 치를 떠는 《유신》독재가 전면부활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의 엄혹한 현실은 각계각층 인민들을 《유신》독재부활을 반대하는 대중적항쟁에로 부르고있다.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기마련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피뢰당국의 《유신》독재부활책동에 견결히 맞서 싸우고있다.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 로동자와 농민, 언론인, 종교인, 예술인 등 광범한 세력이 반《정부》초불집회를 끊임없이 벌리고 시국선언들을 련일 발표하면서 피뢰보수패당을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반《정부》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통합진보당과 전교조, 전공로에 대한 탄압책동은 비단 이 단체들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다. 《유신》독재부활의 저지는 민주와 정의를 바라는 남조선의 전체 근로대중의 운명이 걸린 사활적문제이다. 진보와 반동, 민주와 파쑈사이의 누가 누구를 하는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고있는 지금 남조선의 각계단체들과 광범한 인민들은 리념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여넘어 단결하고 파쑈독재를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에게는 불의와 독재에 굴하지 않고 영웅적인 항쟁을 벌려 파쑈통치배들을 파멸에로 몰아넣은 민주화투쟁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남조선인민들이 렬사들의 정신과 기개를 살려 민주주의수호를 위한 전민항쟁에 대중적으로 궐기해나서야 할 때이다.

피뢰보수패당의 악랄한 파쑈폭압책동을 짓부시지 못한다면 남조선은 《유신》의 과거에로 완전히 되돌아갈것이며 근로인민대중은 독재의 철퇴밑에 피흘리며 쓰러지게 될것이다. 그것은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피뢰집권세력의 파쑈적탄압과 《유신》독재부활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아침을 기어이 앞당겨오고야말것이다.

은 정 철

도이췰란드단체, 스웨리예정당기관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소동과 진보세력탄압소동을 강력히 규탄

도이췰란드 프랑켄주체사상연구소조가 8일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행위와 남조선피뢰당국의 진보세력탄압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은 핵항공모함까지 동원하여 조선반도주변에서 해상합동훈련을 벌려놓음으로써 정세를 또다시 격화시켰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명백한 핵위협이며 도발이다.

미국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모든 도발을 중지하며 그들의 자주적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지금 미제국주의에 굴종하는 남조선보수패당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추종하면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미쳐날뛰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

보수세력의 목적은 진보적력량의 확대를 막자는데 있다.

이것은 남조선피뢰당국이 표방하는 《민주주의》가 한갖 거짓이라는것을 또다시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피뢰상층부는 오직 제국주의와의 동맹을 통해 저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반역집단이며 국제금융자본의 하수인들이다.

우리는 남조선피뢰당국이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하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

스웨리예의 공산당기관지 《프로레테렌》 4일부가 《남조선보수〈정권〉이 반민주주의적인 법들을 발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남조선의 보수《정권》이 《헌법을 위반》하는 정당들과 단체들에 대한 탄압소동을 벌리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것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

남조선당국은 통합진보당의 주요성원을 체포하고 관계자들의 집과 사무실까지 수색하고있다. 또한 전국교직원로동조합을 《종북의 심장》이라고 하면서 해산시키려 하고있다.

남조선의 진보세력은 현 《정권》의 이러한 책동을 남조선사회를 이전 군사독재시대로 되돌려보려는 책동으로 규탄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독재정치를 하는 《정부》를 규탄

남조선의 참여련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8일 서울에서 모임을 가지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피뢰패당의 강제해산책동을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박근혜《정부》가 정보원의 선거개입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고 나중에는 강제해산을 위한 청구안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특히 청구안이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은채 《국무회의》에서 강행적으로 통과된것이나 검토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것 등은 매우 중대한 절차상의 오유라고 비난하였다.

* *

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가 13일 피뢰정부의 통합진보당해산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유신》독재에로의 회귀로 사회를 얼어붙게 만든 박근혜《정부》가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협박하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려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법무부가 《통합진보당해산결정시까지 자유민주적기본질서가 침해될 우려가 존재한다.》느니 뭐니 하며 야당활동을 금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강박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박근혜《정부》가 독재정치를 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사실상 《새누리당》의 독재로 법이 유린당한지 오래다고 지탄하였다. 박근혜《정부》가 민주주의를 겨눈 독재의 칼이 반드시 독재세력의 몰락을 재촉하는것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독판치기를 꿈꾸는 여당을 비난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13일 《일당독재 망상에 사로잡힌 새누리당》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새누리당》이 《현재 국회의 형편이 헌법정신과 맞지 않으며 이런 국회운영을 방치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 무슨 《국회선진화법》의 위법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지난해 제손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선진국회운영의 길을 열었다.》고 자화자찬하고는 이제 와서 위법을 운운하며 소송을 떠드는것이야말로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이라고 조소하였다.

사설은 과거 군사독재시기처럼 로조와 진보야당을 해산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는 등 일당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당국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불법선거의 진상규명을 주장

남조선의 《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규탄 비상시국회의》가 1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불법선거의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할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해선거는 정보원과 국방부를 비롯한 주요권력기관들이 개입된 불법선거라고 주장하였다. 관련선거의 실상을 낱낱이 알리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주최로 국민법정을 열것이라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애국위업의 한길에서

뜨거운 믿음에 높은 실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련은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각급 조직과 단체들을 더욱 강화하며 민족교육사업과 새 세대, 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고 활력있게 벌려 총련을 전통이 굳건하고 군중적지반이 강하며 전도가 양양한 위력한 애국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에 즈음하여 조국에서 진행된 경축행사에 참가하였던 총련 도꾜도본부관하 일군들의 귀환보고모임이 얼마전 본부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 보고자는 이번 전승절경축행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모시고 세기와 세기를 이어 전승의 력사를 창조해온 선군혁명승리자들의 대축전으로서 승리는 영원히 선군조선의것이라는것을 내외에 과시하였다고 흥분에 넘쳐 말하였다.

보고에 이어 저저마다 연단에 오른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여러차례 몸가까이 모시는 특전과 행운을 누리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갈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은 남다른 영광에 대하여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번 행사기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자하신 풍모에 더더욱 매혹되였으며 원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게 되였다고 긍지높이 말하였다. 특히 성대한 열병식과 군중시위를 통하여 조국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불패의 군력, 위대한 조국이 있기에 우리 총련도 있다는것을 페부에 새기게 되였다고 그들은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눈부신 비약이 일어나고있는 조국의 현실을 참관지들마다에서 목격하면서 느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토론자들은 흥분을 걷잡지 못하였다.

경축행사기간 이역에서 온 자기들에게 돌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에 대하여서도 눈물속에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총련일군들을 해외에서 활동하는 전우, 동지로 믿고 내세워주시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높은 사업실적으로 그에 보답할 충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당면하여 총련 제23차 전체대회를 앞두고 진행되고있는 《민족교육고수발전, 분회활성화 도꾜모범창조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의지의 목소리들이 힘차게 울려나왔다.

일본반동들이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지만 필승의 신념을 안고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받들어 애국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려는 총련일군들의 의지는 이처럼 억척불변이다.

미더운 조청일군

조청 히가시오사까 미나미지부에서 애국의 기운이 약동하고있다. 우리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에서도 모범이고 조청본부가 주관하는 《오사까의 불길—대고조운동》에서도 언제나 앞장서나가고있다. 이곳 조청원들은 높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면서 동포사회를 자기들의 힘으로 지켜나갈 의지를 행동으로 과시하고있다.

지부사업에서 이룩되고있는 이 모든 성과들의 밑바탕에는 지부 부위원장 조태은청년의 헌신의 노력도 깔려있다. 총련오사까조선고급학교를 졸업한 조태은청년은 14년간 조청활동을 줄기차게 벌려오고있는 미더운 새 세대 조청일군이다. 동포청년들에 대한 방문담화사업과 학교지원행사에서도 그는 항상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지부일군들을 이끌고있다. 그 나날 그는 동포사회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와 같은 조청일군들이 지닌 무거운 사명감에 대하여 더욱 깊이 깨닫게 되였다. 몇해전 지부 부위원장의 직책을 맡은 후 그의 헌신의 보폭은 더욱 넓어졌다. 위대한 어머니조국을 견결히 옹호하고 동포사회를 끝까지 지켜나갈 새 세대의 량심안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려는 그의 결심은 확고하다.

그는 모든 조청원들이 선대들이 지니였던 애국의 정신을 계승하도록 하고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직을 동포청년들의 지향을 꽃피워주는 참다운 청년단체로, 힘있고 약동하며 매력있는 청춘의 활무대로 꾸리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애국위업의 고수를 위해, 동포사회의 미래를 위해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바쳐간다는 긍지와 보람안고 조태은청년은 오늘도 힘든줄 모르고 뛰여다니고있다.

재일조선인운동의 휘황한 앞날의 주인공이라는 자각을 안고 힘차게 나아가는 이런 미더운 조청일군들에 의해 총련의 애국위업은 새로운 전성기를 향해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

동포단합의 주요수단으로

이역땅에서 민족의 문화유산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재일동포들도 바둑을 몹시 즐겨한다. 동포사회에서 바둑은 단지 민족성고수뿐아니라 동포단합을 위한 주요수단으로도 활용되고있다.

총련 교또부 세이진지부 바둑소조의 경험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이 소조는 15년의 력사를 가지고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동포들이 모여와 밤늦도록 바둑을 즐기군 한다. 이곳 바둑소조는 지난 기간 분회회관 등 여러곳에서 끊임없이 운영되여왔다. 조건이 구비되지 못했을 때에는 동포들의 집에서 소조의 문을 열었다. 지난 2003년 지부회관의 완공이후에는 매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있다. 바둑소조활동을 통해 동포사회와 련계를 맺은 사람들도 적지 않다. 지난 2004년 처음으로 진행된 바둑애호가들의 모임은 그후 년례행사로 진행되면서 다른 지역의 동포바둑애호가들과의 친목을 깊이하는 등 동포사회의 단합을 촉진하는 마당으로 되고있다.

바둑을 자기 생활의 한 부분으로 간직하고있다는 세이진바둑협회 회장 김성규동포는 바둑두기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 더 즐거운것은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화목과 단합의 정을 깊이하는것이라고 말한다.

본사기자 허영민

창조의 활무대를 펼쳐준 뜨거운 손길

서평양기관차대에서

조건보장은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혁신목표수행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이런 관점밑에 서평양기관차대 초급당위원회에서는 3대혁명소조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이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해당 단위 당책임일군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서평양기관차대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관차수리에 절실히 필요한 어느 한 장치를 유압식으로 새롭게 제작할수 있는 기발한 안을 내놓았을 때였다.

이 기술혁신안만 성공하게 되면 중량물인 기관차부속품들을 다루는 로동자들의 일손을 크게 돕는것은 물론 기관차의 수리정비도 질적으로 더 빨리 다그칠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제를 성공시키자면 기관차대에서 많은 자재를 보장해야만 했다.

그런것으로 해서 대에서는 심중한 토론들이 있었다.

아직 확고한 기술적타산도 경험도 없는 3대혁명소조원들이 어렵고 힘든 과업을 꽤 해낼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때 어느 한 협의회에서 초급당비서 김춘근동무는 준절히 말하였다.

《보수품생산용압연기를 만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안된다고 반대했지만 3대혁명소조원들은 기어이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당에서 키운 그들을 믿고 맡깁시다. 반드시 해낼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창조의 활무대를 어떻게 마련해주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당조직의 이런 기대와 믿음속에 3대혁명소조 책임자 김하규동무와 3대혁명소조원들은 새 기술혁신과제수행에 신심있게 달라붙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기관차대의 모든 일군들이 3대혁명소조원들의 새 기술혁신안에 대한 조건보장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누구나 두팔을 걷고 도와나서도록 하였다. 또한 초급당위원회에서는 3대혁명소조원들이 하루빨리 성공의 령마루에로 치달아오르도록 잘 이끌어주었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유압장치의 설계를 처음 해본다는것을 알고는 배심있게 설계를 진척시켜나가도록 신심을 안겨주었다. 기관차대에서 구하기가 힘든 어느 한 부속품의 소재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에는 초급당일군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먼 출장길에도 주저없이 나섰다. 장치시험이 어려운 고비에 들어갔을 때에는 3대혁명소조원들과 함께 며칠밤을 꼬박 새워가며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이런 뜨거운 진정속에 3대혁명소조원들은 새 기술혁신과제수행에서 걸린 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풀고 빠른 시일안에 유압식해체장치를 성공시켰다.

그뿐이 아니다.

김은철, 강룡철, 리철민동무를 비롯한 이곳 3대혁명소조원들은 기관차수리를 위한 보수품생산용압연기제작을 비롯하여 기관차의 수리와 정비를 위해 필요되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수많이 성공시켜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기술혁신성과로 빛내이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대학에서 배운 과학기술지식을 현실에서 마음껏 활용해나가도록 창조의 활무대를 펼쳐준 어머니당조직의 뜨거운 손길이 있어 서평양기관차대 3대혁명소조원들은 비약의 나래를 펴고 최첨단의 령마루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달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채인철

《정말 쉽지 않은 일군입니다》

농업과학원 강냉이연구소 아래단위 일군인 방만석동무

얼마전 북창군을 찾았던 우리에게 군당의 책임일군은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한 일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바로 농업과학원 강냉이연구소 아래단위 일군인 방만석동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우리 당과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동지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여야 합니다.》

책임일군은 방만석동무야말로 정말 쉽지 않은 일군이라고 하면서 지난해와 올해에 남양리에 여러개의 다리들이 건설된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남양리는 예로부터 물이 바른 곳이다. 하지만 그처럼 귀한 물도 장마철이면 갑자기 불어나리의 한가운데로 흐르는 수옥천은 범람하기가 일쑤였다. 그로 해서 제일 애로를 겪는 사람들은 수옥천가에 있는 북창군 수옥고급중학교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이였다.

사품치며 흐르는 물때문에 다리까지 떠내려가면 그들은 하는수없이 먼길을 에돌아 등교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주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방만석동무가 수옥천에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는 콩크리트다리를 건설할것을 결심한것은 온 나라가 비분에 떨던 피눈물의 12월 어느날이였다.

당조직을 찾아간 그는 지난 시기 장마철이면 학생들과 주민들이 온전한 다리가 없어 불편을 느끼고있는것을 알면서도 선뜻 다리를 훌륭하게 건설할 용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진정어린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평생 인민들과 후대들을 위해 멀고 험한 길을 걷고걸으신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자체의 힘으로 수옥천에 4개의 다리를 건설할것을 제기하였다.

당조직에서는 그의 결심을 지지하였다. 그러면서 많은 세멘트와 목재, 철강재가 요구되는 다리건설을 빠른 기간안에 끝내자면 뭐니뭐니해도 자재보장이 기본이라고 하며 그 일을 맡아나선 방만석동무를 고무해주었다.

사실 종업원이 많지 않은 단위에서 세멘트만 해도 수십t이나 드는 다리건설을 자체로 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더구나 다리건설이 그 단위의 사업과 직결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4개의 다리를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건설한다는것은 누구나 쉽게 결심할 문제가 아니였다.

방만석동무는 다리건설에 필요한 세멘트와 강재를 해결하기 위해 아글타글 뛰여다녔다. 때로는 세멘트생산자들과 함께 며칠씩 일하기도 하였고 부족되는 강재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리 밤길을 걷기도 하였다.

다리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그는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공사가 일정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마음을 썼다. 그 나날 건강이 악화되여 의사들로부터 여러차례 입원치료를 받을것을 권고받았으나 그는 다리건설을 끝내기 전에는 절대로 현장을 떠날수 없다고 하면서 모진 아픔을 참아가며 건설을 지휘하였다.

방만석동무의 이렇듯 헌신적인 노력과 돌격대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수옥천에는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는 4개의 콩크리트다리가 훌륭히 건설되게 되였다.

방만석동무에 대한 자랑은 이뿐이 아니였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 대해 정말 쉽지 않은 일군이라고 하면서 지난 시기 전쟁로병들과 유가족들의 생활을 친자식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준 사실들을 이야기하였다.

얼마전에도 그는 자기가 일하는 단위의 부모없는 한 종업원의 결혼상을 차려주고 살림집과 집세간까지 마련해주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두 아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그는 지난 기간 군민관계를 강화하고 나라에 보탬을 주는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감사를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였다.

열남매의 막내인 자기를 따뜻한 사랑의 한품에 안아 대학공부를 시켜주고 한개 단위를 책임진 어엿한 일군으로 내세워준 어머니당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정을 안고 그는 오늘도 보답의 한길을 걷고있다.

본사기자

독자의 편지

소리높이 자랑하고싶습니다

저는 연백지구관개관리소에서 40여년간 일해오다가 지금은 년로보장을 받고 집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펜을 들게 된것은 최근에 자기의 면모를 완전히 바꾼 연백지구관개관리소를 보면서 어머니당일군의 참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을수가 없기때문입니다.

사실 연백지구관개관리소는 몇년전까지만 해도 그닥 알려지지 않은 자그마한 단위였습니다.

그러던 관개관리소가 최근에 와서는 일이 잘되는 단위로 크게 소문을 내고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당의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지난 10년동안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많은 일을 해놓은 초급당비서 홍용진동무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습니다.

홍용진동무는 이곳 초급당비서로 임명된 때로부터 어느 하루도 발편잠을 자보지 못하였습니다. 종업원들의 후방사업을 위해 간석지개간전투를 발기하고 전투의 앞장에서 달리던 당일군의 모습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관개관리소를 훌륭히 꾸려놓고 대용연료를 리용한 한증칸이 달린 목욕탕도 번듯하게 지어 종업원들의 위생문화사업에 크게 이바지하게 하였습니다. 축사와 온실도 새롭게 일떠세워 돼지와 염소를 많이 기르고 남새와 버섯도 생산하여 종업원들이 그 덕을 보게 하고있습니다.

이런 많은 일을 해놓고도 그는 국가수훈사업이 제기될 때마다 종업원들을 먼저 내세워주었습니다.

누가 알아주건말건 오직 종업원들을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이런 당일군을 가리켜 사람들은 누구나 어머니당일군이라고 스스럼없이 부르며 따르고있습니다. 이런 당일군을 소리높이 자랑하고싶습니다.

연안군 자양리 67인민반 리필현

결의목표실현의 앞장에서

벽동군 남중협동농장 3대혁명붉은기 축산작업반 당세포에서 초급일군들이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실현의 앞장에서 달려나가도록 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당세포비서 류명철동무는 결의목표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어렵고 힘든 일감이 제기될 때마다 자신이 실천적모범을 보이면서 초급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달리도록 분공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작업반장 리순철동무는 결의목표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제일 힘든 일감을 솔선 걸머지고 작업반원들을 이끌어나가고있다. 그는 모든 건물의 지붕을 세멘트기와로 새로 교체할데 대한 결의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뛰고 또 뛰면서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그리하여 한해 남짓한 사이에 모든 공공건물과 집짐승우리의 기와를 세멘트기와로 교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모든 분조장들도 앞선 사양관리방법들을 받아들이고 먹이가공시설들을 그쯘히 갖추어 염소와 토끼를 비롯한 여러가지 집짐승의 마리수를 부쩍 늘이기 위한 결의목표실현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세포에서는 결의목표실현에서 앞장서 달리고있는 초급일군들의 소행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영예등록장에 등록하고 그들의 모범을 따라 모든 작업반원들이 결의목표실현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도록 불러일으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전준갑

그 무슨 불가침조약체결론의 허황성

비핵화사전조치와 불가침조약체결,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해 미국이 새롭게 막을 올린 여론전의 골자라고 할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비핵화를 먼저 시작하면 미국은 대화탁에도 나앉고 평화적인 관계도 맺으며 불가침조약도 체결한다는것이다.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이번 기만극의 신빙성보장을 위해 미국의 우두머리들은 저마다 나서서 목청을 돋구고있다.

그러고보면 미국의 정치란 하나의 가면무도회나 같다. 필요할 때마다 이것저것으로 가면을 바꿔대는 정객들은 기량높은 주역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묻건대 새해벽두부터 주권국가의 당당한 위성발사권리마저 문제시하며 반공화국《제재》소동에 열을 올린것이 어느 나라인가. 온 한해 조선반도의 하늘과 땅, 바다에 악명높은 핵타격수단들을 끌어들여 불장난소동을 벌려놓은것은 과연 누구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북침의 불을 토하던 미국이 느닷없이 우리를 상대로 불가침선창을 뗀것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전쟁으로 요동치는 탐욕의 몸뚱이를 화려한 면사포로 감추고 감언리설을 늘어놓는 미당국자들의 처사야말로 구정물에서의 향기자랑만큼 역겹다.

미국이 첨예한 조선반도사태의 본질을 외곡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 압박도수를 높이려고 발악한다 하여 결코 진실이 가리워지는것은 아니다.

영국의 국제문제전문가 피니안 쿤닝함은 사회계에 전해지는 모든 소식들, 보도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도발자》, 《핵위협》의 장본인으로 비난하고 미국을 가장 리성적이고 평화애호적인 《정의의 국가》로 만드는데 집중되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서방사람들은 조선반도에서 발생하고있는 충돌의 본질에 대하여, 세계안전의 실제적인 위협의 근원에 대하여 잘 모르고있다, 조선에서 발생하는 모든 충돌의 력사는 완전히 날조외곡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스웨리예신문 《쉬드외스트란》은 지각이 있는 사람은 조선이 자기를 방어하고 전쟁을 억제할 목적에서 핵을 가졌다는것을 리해한다고 전하였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미국이 조선의 위협을 과장하는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저들의 군대를 더 많이 배비하고 미싸일방위체계를 발전시키며 군사적배비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리유와 구실을 찾기 위해서이라고 까밝혔다.

진실은 바로 이렇다. 장장 수십년세월 가증되는 핵위협으로 평화애호국가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아나서는 장본인도,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의 극단으로 몰아가는 주범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국무장관 케리가 일본 도꾜한복판에서 불가침타령을 외워대기 하루전에 미국은 남조선괴뢰들과 야합하여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맞춤형억제전략》이라는것을 확정발표하였다. 여기서 거론된 우리의 그 무슨 《위협》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황당한 궤변이다. 본토와 괌도, 하와이, 일본 등에 우리를 겨냥한 핵타격수단들을 전개해놓은 미국이 우리의 《위협》을 떠드는것은 강도가 강도야 하는 식이 아닐수 없다. 더우기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리도 억지를 부리더니 지금에 와서는 우리의 《핵공격》을 떠들며 대응전략까지 고안해낸것은 미국이 얼마나 헤여날수 없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준다. 이처럼 모순적이며 기만적인 론거들우에 세워진 《맞춤형억제전략》은 본질상 우리에 대한 핵위협의 증대이고 핵선제타격계획의 완성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과 괴뢰들은 《맞춤형억제전략》의 실효성검증을 운운하며 전례없는 합동군사연습들을 벌려놓고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미국의 북침핵선제공격기도가 단순한 위협단계를 넘어 실행계선에 들어섰다는것을 시사해준다.

호시탐탐 우리의 체제전복과 령토강점을 노리는 미국이 불가침타령을 입에 올리고 우리의 비핵화에 대해 말하는것은 파렴치성과 교활성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원래 불가침조약은 쌍방이 서로 령토와 자주권을 존중하면서 침략과 무력간섭을 포함한 일체 군사적공격을 하지 않는다는것을 약속하는 법적성격을 띠는 합의로 알려져있다. 세계사에 기록된 수많은 불가침과 관련한 일화의 그 어디에도 상대방의 무장을 먼저 내리게 하고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고 달라붙은 나라는 있어본적이 없다. 지난 세기 이전 쏘련에 대한 불의의 침공을 가리우기 위한 파쑈도이췰란드의 흉계가 깃든 쏘도불가침조약이나 진주만에 대한 불의타격으로 미국을 허우적거리게 만들려고 벌린 군국주의일본의 불가침외교에도 그런 대목은 없다.

우리가 핵을 놓고 맨몸으로 나앉으면 화친하겠다는 미국의 파렴치하고 간교한 불가침타령이 추구하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못 이겨 이미 있던 전쟁억제력마저 포기하였다가 종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만 발칸반도와 이라크, 리비아의 수난을 이 땅에서 되풀이하자는것이다.

미국이 불가침조약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우리의 비핵화조치도 마찬가지이다.

조선반도비핵화는 공화국정부가 실현하려는 불변의 정책적목표이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남조선을 포함한 전조선반도의 비핵화이다. 이 비핵화는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까지 완전히 청산하고 그것을 세계의 비핵화와 이어놓는것이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반도비핵화의 의미를 제멋대로 해석하며 우리의 선핵포기에 대해 외워대고있다. 우리의 선핵포기와 조선반도비핵화는 같은 뜻을 가진 개념이 아니다. 미국이 방대한 핵타격수단들을 배비해놓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핵공갈을 일삼는 상태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내놓는다고 하여 조선반도비핵화가 실현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이다. 그렇게 되는 경우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은 완전히 통제를 잃고 평화적환경은 깨여져나가게 된다.

비단 조선반도뿐이 아니다. 국제문제전문가들은 조선반도에서 미국이 총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제3차 세계대전의 개시나 세계열핵전쟁의 개시를 의미하며 그 전쟁이 가져다주는 피해가 전지구적인것으로 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사실상 세계핵렬강들의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략적요충지대이며 세계최대의 핵화약고나 다름없는 이곳에서 튕긴 한점의 불꽃은 대양건너 미국은 물론 전세계를 핵전쟁의 도가니속에 집어넣을것이다.

단언하건대 우리의 선핵포기를 전제로 미국이 내놓은 불가침제안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줄수 없다. 어제도 오늘도 조선반도의 특수한 상황은 특수한 해결책을 요구하고있다. 일방적인 핵포기로써는 언제 가도 문제를 풀수 없다.

핵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자기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지켜냈으며 핵무기로 짝들어차고 유독 우리 공화국만이 유일한 핵위협대상으로 되고있던 조선반도의 핵불균형상태는 끝장나게 되였다. 우리의 핵억제력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의 전쟁발발위험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였다. 미국의 전대미문의 핵위협속에서 우리가 자기의 존엄을 지키고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고 강화발전시켜온것은 너무도 정당하다.

우리에게 있어서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핵을 대화마당에 올려놓고 흥정하려드는 미국의 망발은 달을 보고 짖는 개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와의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전제조건을 내세운 대화나 관계개선에 대하여, 핵무기를 먼저 내려놓아야 불가침이 있다는 날강도적인 타령을 다시는 늘어놓지 말아야 한다.

예로부터 소인은 눈앞의 리익을 따지고 대인은 옳고그름을 가린다고 하였다. 미국이 정말로 덩지큰 나라라면 눈감고 아웅하는 서푼짜리 기만극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단호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 오랜 세월 반미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기 저어하던 남조선인민들이 우리 공화국을 따라 반미투쟁에 떨쳐나서고 조선의 핵과 공존해야 한다는 론조가 미국의 핵소동에 동조하였던 서방세계에서까지 울려나오고있는 현시점에서 오바마행정부는 우리를 겨냥한 각양각색의 적대적조치를 철회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한다. 바로 여기에 조미관계개선의 길이 있고 조선반도평화의 담보가 있다.

배 금 희

해외팽창야망실현을 위한 음흉한 술책

쩍하면 남을 걸고들며 제 리속을 챙기는것은 일본반동들의 고질적인 악습이다.

지난 8일 일본수상 아베가 국회 참의원회의에서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이 일본의 안전보장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있다고 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설립의 정당성에 대하여 력설한것이 그 집중적표현이다.

일본반동들이 떠드는 그 누구의 《위협》설은 생억지에 불과하다. 지나간 력사를 헤쳐보아도 우리 나라가 일본을 침략하거나 식민지화한적은 한번도 없었다. 도리여 일본이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노예화하였다. 침략과 략탈을 업으로 삼아온 일본반동들이 우리 나라의 《위협》에 대해 횡설수설하는것은 저들의 범죄행위가 세상에 폭로되는것이 두려워 하는 파렴치한 수작에 불과하다.

일본지배층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립하는것이 필수불가결한것처럼 떠들어대는것은 그들의 군국화책동이 최절정에 달하고있다는것을 드러내보여준다.

얼마전 일본중의원 국가안전보장특별위원회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창설법안이라는것이 가결되였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상, 내각관방장관, 외상, 방위상으로 구성된 《4인각료회의》가 상설적으로 운영되고 여기에서 외교안보정책의 기본내용들이 결정되게 된다.

얼핏 보기에는 그 무슨 《안전보장》을 위한 기구인것처럼 보이지만 실지는 그렇지 않다. 거기에는 미국의 본을 따서 저들도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용이하게 하려는 교활한 술책이 깔려있다. 한마디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의 미명하에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작성하고 군국화와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자는것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더우기 스쳐보낼수 없는것은 일본반동들이 년말에 결정되는 새 《방위계획대강》에 최신예 요격미싸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새로 건조하기로 쪼아박은것이다. 현재 일본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들은 요격미싸일들로 장비하고있으며 앞으로 일본은 이지스함들에 미국과 공동개발중인 다음세대 요격미싸일을 탑재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우리의 《미싸일위협》을 걸고 저들의 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을 합리화하고 일단 유사시 조선반도주변해역에서 제해권을 장악해보려는 위험한 군사적소동이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는것은 일본반동들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이를 위해 일본반동들은 지난 시기 군국주의마차를 맹렬히 몰아왔다. 일본수상 아베는 군국주의광신자이다. 해외팽창에 들떠있는 현 정부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개편하며 헌법을 개악하는 등 해외침략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해외침략준비완성을 위해 《자위대》를 최신형군사장비들로 무장시키고있다.

일본에서 발광적으로 추진되고있는 군국화책동은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책동이 위험한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호전광들이 저들의 음흉한 목적을 가리우기 위해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해 줴쳐대고있는것은 적반하장격이다.

날로 우경화되고있는 일본사회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무분별한 광증을 두고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시하고있는것은 바로 이와 관련된다.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범죄적야망을 절대로 감출수 없다. 남을 걸고들며 저들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책동을 강화하려 할수록 자멸만을 촉진할뿐이라는것을 일본당국자들은 똑똑히 명심하여야 한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무분별하게 날뛰다가 처형된 전범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거든 자중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신 경 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담화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추악한 사대매국노, 극악한 동족대결광의 본색을 드러낸 박근혜의 떠돌이행각을 단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담화를 15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박근혜가 이달초 서유럽나라들을 방문하면서 추악한 사대매국노, 동족대결광으로서의 본색을 드러내보였다고 주장하였다고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대변인은 조선의 핵과 미싸일은 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보검이라고 하면서 핵을 포기하고 미싸일을 페기하라는것은 결국 자주와 존엄을 내던지고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라는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옳바른 선택》과 《진정한 변화》를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박근혜의 요구에 대해 조선이 바라는것은 결코 허울좋은 미국식민주주의나 약육강식의 론리에 기초한 미국식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대변인은 옳바른 선택과 진정한 변화는 다름아닌 박근혜가 해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박근혜와 그 패당의 차후 움직임을 지켜보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담화는 조선이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경제건설과 핵무력강화의 병진로선을 시종일관 실시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담화는 박근혜의 북남수뇌회담문제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위선적인것으로 평가하였다.

박근혜가 신뢰를 받으려 한다면 북남공동선언과 기타 합의들을 존중해야 할것이라고 담화에는 강조되여있다.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도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중국외교부 대변인 미국의 인종차별행위 비난

중국외교부 대변인 진강이 최근 정기기자회견에서 중국인들을 차별시하는 방송프로를 방영한 미국 ABC방송의 부당한 행위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중국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쓴 미국의 ABC방송의 그와 같은 인종차별과 민족증오행위는 대중보도수단들의 사회적책임에 어긋난다고 단죄하였다.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그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행한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ABC방송당국이 저들의 과오를 똑바로 보고 성실한 태도로 시위참가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답하며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것을 요구하였다.

중국, 로씨야, 인디아외무상회의 진행

제12차 중국, 로씨야, 인디아외무상회의가 최근 인디아의 뉴델리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 중국외교부장 왕의는 3개국이 서로의 전략적조정을 강화하여 아시아와 유럽대륙의 평화적안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3개국이 전략적 및 전반적각도에서 중국-로씨야-인디아협조를 대하고 추진하며 호상신뢰를 증진시키고 중대한 국제문제처리를 조정하며 실용적협조를 심화시키는데 초점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 3개국 외무상들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폭넓은 합의를 이룩하였다.

식량안전보장조치

우루과이정부가 식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외세의 토지구입을 금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12일 정부가 그와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안은 나라의 자연부원 특히 토지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 회사들이 우루과이령내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는것을 금지시킨다고 규정하였다.

법안은 그러한 조치가 국가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생산활동이 우루과이인민들의 복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며 나라의 전략적, 안보상리익을 지키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의 무인기공습만행에 항의하는 파키스탄인민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위성 발사

로씨야에서 군사통신위성 《라두가-1M》을 쏴올렸다.

위성을 탑재한 운반로케트 《쁘로똔-M》이 12일 바이꼬누르우주발사장에서 성과적으로 발사되였다. 《라두가-1M》위성은 통일적인 우주통신체계 2단계에 포함되는 3세대군사통신위성으로서 이동통신소들과의 통신을 보장하는 현대적인 기구로 장비되여있다고 한다.

협 조

—중국, 로씨야, 인디아가 10일 뉴델리에서 가진 외무상회의끝에 공동콤뮤니케를 발표하여 국제적인 반테로투쟁에서 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공동콤뮤니케는 테로가 세계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고 하면서 테로를 조직하고 감행하며 후원하는자들에게 법적처벌을 가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중국과 예멘이 14일 여러 분야에서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날 중국과 모리따니는 쌍무군사관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로씨야와 벨라루씨가 군사기술분야에서 호상협조를 긴밀히 하고있다.

최근 로씨야국방상 쎄르게이 쇼이구가 두 나라 국방성공동참의회 정기회의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로씨야가 벨라루씨에 4기의 《C-300》대공미싸일종합체를 넘겨줄것을 계획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치가 벨라루씨와 두 나라의 단일한 지역반항공체계의 전투적잠재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취해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꾸바와 베네수엘라가 최근 사법분야에서 호상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타이가 14일 여러 분야에서 쌍무관계를 심화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란에서 의약품생산

자연재해

—중국에서 10월에 각종 자연재해로 피해가 났다.

11일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자연재해로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144만 6 000명이 긴급소개되였다.

또한 14만 7 000여칸의 살림방이 무너지거나 파손되고 1 781만 5 000ha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102만여ha에서는 수확을 기대할수 없게 되였다.

—인도네시아의 북부쑤마뜨라주에서 9일 무더기비에 의한 산사태피해를 입었다. 산사태로 4명이 목숨을 잃고 살림집들이 파괴되였다. 현지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되였다.

또한 11일 씨나붕화산이 또다시 분출하였다. 화산이 강하게 폭발하면서 분화구에서 화산재와 용암이 뿜어져나왔다.

화산분출로 하여 약 2 500명의 주민들이 긴급소개되였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앞바다에서 13일 리히터척도로 6.1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원은 바다물밑 10km 되는 곳에 있었다.

—일본 이바라기현의 남부지역에서 10일 리히터척도로 5.5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원은 이 지역 앞바다 물밑 약 70km 되는 곳에 있었다.

나토군병사 즉사

아프가니스탄주둔 나토군이 이 나라 항쟁세력의 무장공격으로 계속 녹아나고있다. 13일 나라의 남부지역에서 항쟁세력의 폭탄공격을 받아 1명의 나토군병사가 또 즉사하였다.

이로써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은 나토군병사수는 147명으로 늘어났다.

마약범죄

도이췰란드의 뉴른베르그시에서 12일 마약밀수행위가 드러나 약 700kg의 마리후아나가 압수되고 그것을 운반하던 범죄자가 체포되였다. 한편 오스트랄리아의 시드니비행장에서 최근 2kg의 마약이 적발몰수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만성적인 시달리고있는 유럽동맹 나라들 경제위기에

유럽동맹 나라들이 만성적인 경제위기에 시달리고있다.

올해 1.4분기에 유로를 사용하는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액의 92.2%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1.6% 더 늘어난것으로서 지금까지의 최고기록으로 된다고 한다.

에스빠냐에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에 국가채무가 9 471억 8 400만€에 달하였으며 프랑스에서는 올해 1.4분기에 1조 8 700억€에 이르렀다.

막대한 국가채무를 걸머지고있는 이 나라들에서 설상가상으로 《쌍둥이적자》가 하늘높은줄 모르고 계속 뛰여오르고있다.

프랑스에서는 8월말현재 예산적자가 936억€에 달하였으며 무역적자는 5월에만도 60억€를 기록하였다.

에스빠냐에서는 지난 8월에 475억 7 900만€의 예산적자를 기록하였다.

엄청난 예산적자에 시달려온 이딸리아와 그리스는 유럽동맹으로부터 가해지는 압력에 못이겨 최근 그것을 메꾸기 위한 궁여지책으로서 국가가 소유하고있던 력사유적들과 일부 섬, 등대, 해수욕장, 휴양지들을 팔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리하여 이딸리아의 로마법왕요새, 종교재판관저택 등 고대유적들이 개인들의 식당과 박물관, 호텔로 전락되게 되였다고 한다.

지속되는 불경기속에 실업위기가 격화되고 물가가 폭등하여 심각한 사회적문제들을 야기시키고있다. 유럽동맹 통계국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8월에 동맹성원국들의 실업자수가 2 659만 5 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얼마전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진행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5%가 지난해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답변하였다.

기업체들과 은행들이 련이어 파산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일자리축감사태가 벌어지고있다.

에스빠냐에서는 6월에만도 전국적으로 1 663개의 기업체가 파산되였다.

그리스에서는 다음해말까지 정부기관들의 공무원 1만 5 000명이 해고당하게 된다.

프랑스에서는 전기통신, 항공운수, 식료부문을 대표하는 알카뗄 루쎈뜨, 애르 프랑스, 다노네회사들이, 영국에서는 바클레이즈, 국립스코틀랜드 등 주요은행들이, 에스빠냐에서는 국영철도업체인 렌페 오페라도라회사가, 도이췰란드에서는 전기용품제작업체인 씨멘스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체들이 종업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해고소동을 벌리고있다.

올해 9월에 유로를 사용하는 동맹성원국들에서 식료품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6% 인상되였다.

유럽나라 주민들속에서 생활형편이 악화되고있는데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당국의 반인민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있다.

그리스에서는 최근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 응답자 10명중 7명이 나라의 경제형편이 암담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얼마전 에스빠냐의 마드리드에서 수천명의 근로자들이 시위에 떨쳐나 당국의 부당한 긴축조치로 실업률이 계속 높아가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뽀르뚜갈의 리스봉을 비롯한 18개 도시에서 지난 6월 수만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한 가운데 당국의 반인민적인 경제정책을 규탄하는 시위가 일제히 벌어졌다.

그리스, 프랑스, 도이췰란드의 도시들에서도 대규모항의시위들이 련일 벌어져 사회경제적혼란이 더욱 심화되였다.

유럽동맹 수뇌자들과 유럽동맹 유로사용지대 재정상들이 련이어 회의를 소집하고 사태수습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지원조치들을 취하느라 하였지만 위기는 좀처럼 가셔지지 않고있다고 한다.

제반 사실들은 유럽동맹 나라들이 겪고있는 사회경제적위기는 반인민적인 자본주의제도가 낳은 또 하나의 불치의 고질병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민족화페리용을 통해 본 금융체계의 다극화

최근 국제무대에서 많은 나라들이 불안정한 미국딸라대신 민족화페리용을 적극 장려하고있다.

얼마전 중국인민은행은 유럽중앙은행과 화페교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유럽동맹과 중국은 무역에서 딸라에 의존하던 종전 금융체계에서 벗어나 직접 유로와 웬을 결제화페로 리용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미국딸라시세의 파동으로 인한 환률변동위험을 피하고 거래원가를 절약할뿐아니라 기업들의 경영활동에도 매우 유익하다고 한다.

의의는 여기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것은 이번 협정이 미국주도의 국제금융지배체계에 또 한차례의 파렬구를 냈다는데 있다.

딸라가 국제금융체계에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게 된 중요요인의 하나는 무역에서의 결제화페기능을 가지기때문이다. 그런데 딸라의 그 기능이 국제시장에서 민족화페리용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 상실되여가고있는것이다.

올해에 들어와 유럽중앙은행과의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중국인민은행은 이미 7개 나라 중앙은행 및 화페당국과 화페교환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지금까지 중국인민은행은 22개 나라, 지역 중앙은행 및 화페당국과 모두 2조 2 000억RMB. Y어치의 화페교환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이로써 중국인민은행은 잉글랜드은행, 일본중앙은행을 비롯하여 세계의 주요중앙은행들과 협정을 체결한셈이다. 자료에 의하면 인민페의 세계시장점유률은 이미 1.6%에 이르렀다고 한다.

로씨야도 루블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로씨야대통령은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에서 루블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있다고 하면서 루블을 준비화페로 사용하는것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대표적실례로 까자흐스딴은 집단안전조약기구내에서의 군수품구입시 로씨야루블로 청산하기로 결정하였다. 로씨야외무상은 어느 한 석상에서 자기 나라와 아시아 및 기타 지역나라들사이에 민족화페결제에로 이행하는 문제가 일정에 올라있다고 말하였다.

오늘 미국의 딸라지배체계가 무너지고있는것은 원유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세계적인 원유수출국인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경제적명줄을 끊기 위해 가혹한 금융봉쇄, 경제제재에 매달려왔다. 저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나라들에 제재와 압력을 가하기 위한 도구로 딸라를 리용하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미국의 끈질긴 금융제재에 맞서 미국딸라에 의한 원유거래의 완전한 중지를 선포한 이란정부는 자기의 민족화페를 국제무역거래 특히 원유거래에 널리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왔다. 지난해부터 이란정부는 중국에 수출하는 원유대금은 인민페로, 인디아에 수출하는 원유대금의 일부는 루피로 지불받고있다.

이란중앙은행 총재는 자국의 대외무역활동이 미국딸라에 구애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란만이 아니라 적지 않은 원유수출국들이 환률류동폭이 심한 딸라를 포기하고있다.

미국의 딸라지배를 배격하고 금융활동의 다극화를 위한 움직임은 개별적나라들, 반미적인 나라들의 범위를 벗어나 점차 지역적, 세계적범위로 확대되면서 더욱 적극화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알바성원국들은 몇년전부터 공동화페 쑤끄레를 성원국들사이의 무역화페로 정식 리용하고있으며 전망적으로 대륙의 모든 나라들에 도입할것을 예견하고있다.

브라질, 로씨야, 인디아, 중국, 남아프리카로 구성된 브릭스는 개발은행을 창설하여 딸라에 도전하려 하고있다. 현실은 딸라에 기초한 세계금융체계가 서서히 무너져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딸라에 기초하고있는 세계금융체계가 안정성을 잃고 파괴되였다고 평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딸라에 기초한 세계금융체계는 더는 가동하지 않는다. 한가지 화페에 의거하고있는 세계경제는 기본적으로 사멸되였다.

최근에 있은 세계화페시장의 파동이 이 모든것을 확신성있게 보여주었다. 화페시장들은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많은 경우 미국이 화페정책에서 자기의 국가적리익만을 추구하고있기때문이다. 세계경제가 더 잘 가동하게 하자면 딸라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야 한다.》

외신들이 평하듯이 미국딸라의 처지는 그전과 달라졌다.

딸라의 지배체계가 흔들리는 근본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미국경제가 산업경쟁력을 잃은 소비구조, 전쟁구조로 되였기때문이다. 미국의 지배세력들이 딸라의 힘과 그에 의한 세계경제의 안전성에 대하여 주장하고있지만 아무러한 설득력도 없다. 딸라가 여전히 세계를 주도할수 있다는 단꿈은 망상에 불과하다.

금융체계의 다극화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지속에 적극화되고있는 사실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버림받는 미국딸라와 각이한 민족화페의 광범한 리용은 세계경제구도가 다극화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본사기자 전 영 희

ㄱ-31180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